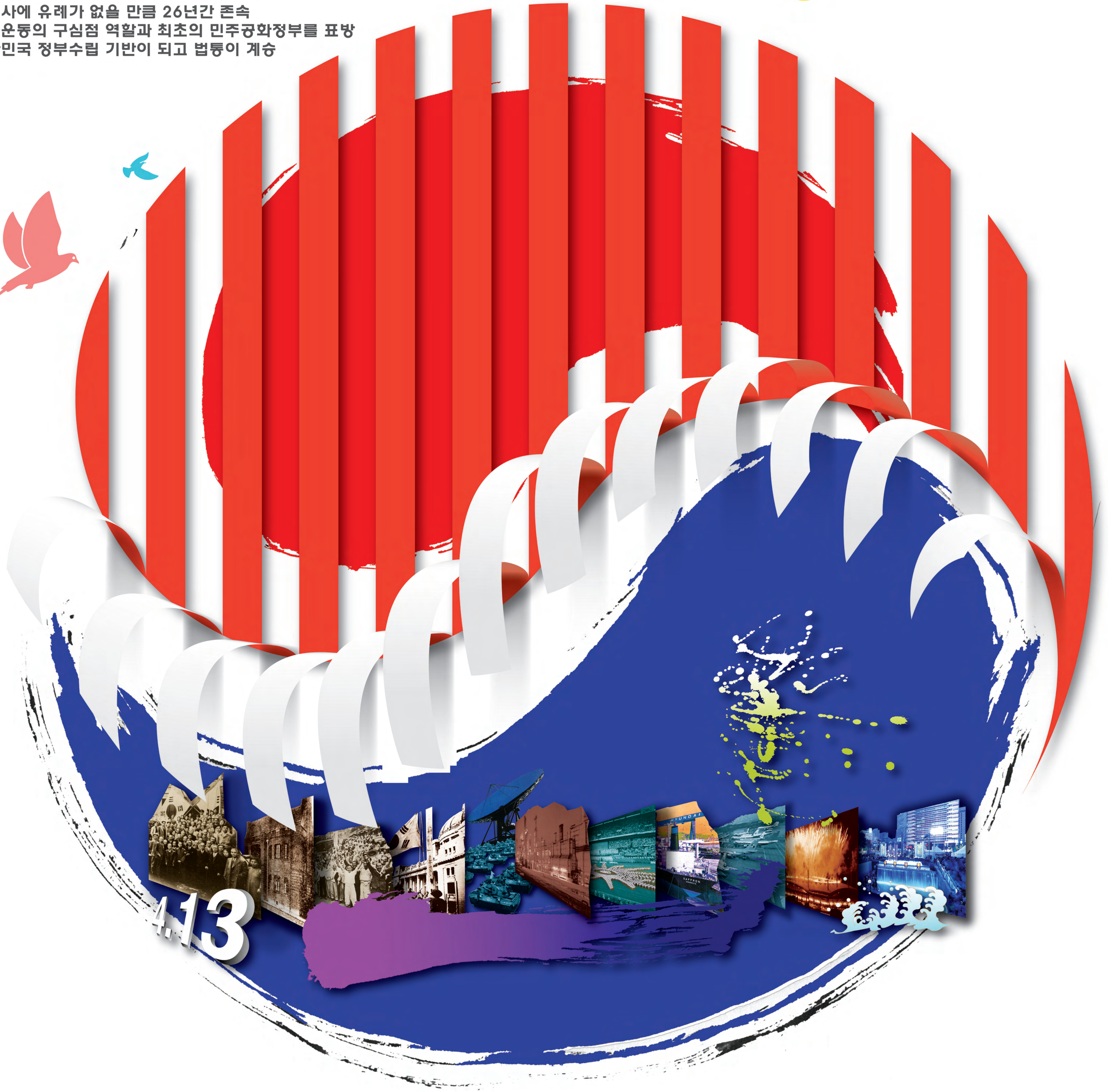
2009 04.01 No.05(통권 106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
기획특집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 '재외동포 네트워크'
탤런트 정애리, 어린이를 위한 20년
백색가루와 전쟁, 마약 수사 24시
"힘내라 경제야"
대한민국 야구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26년간 존속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과 최초의 민주공화정부를 표방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반이 되고 법통이 계승

4.13

4월13일은 제9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전 국민 태극기 게양기간 : 2009.3.1～4.13

"동포사회 정확한 DB 구축해 서로 돕는 네트워크 만들자"

윤영곤(조셉 윤)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원장

증기기관의 발명이나 자동차의 대량생산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네트워크 경제의 출현이다. 과거에는 어떤 연구나 생산을 단절 없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 기술과 인력이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야 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제의 경쟁적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네트워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았다.

정보화 · 지식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활용 가능한 정보와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그런데 개인이 이런 많은 정보나 지식을 모두 흡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어디에, 어떻게, 누구와 함께 활용하는가가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이 자원'이 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개인이 갖춰야 할 자질로 지능(IQ)이나 감성 지능(EQ)에 이어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인 네트워크 지능(NQ)이 새로운 성공요소로 꼽히기도 한다.

세계 170여 개국에 걸쳐 700만 재외동포를 갖고 있는 우리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해 더욱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재외동포 참정권이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민족이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고 재외동포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화의 날개를 단 것이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동포사회의 화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단 현재의 재외동포 단체가 3천여 개에 달한다는 놀라운 통계가 아니더라도, 향후 관련 단체 수는 급속히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무모한 경쟁구도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외동포들을 배려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와 현황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선행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재외동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통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지역적 분열이나 불신을 막을 수 있다.

한민족 공동체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Identity) 위에 상호 협력을 실현하는 네트워크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즉, 특정한 국경이나 정치적,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열린 공동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공동체는 우리 민족 성원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각 구성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나아가 거주국가들 간의 교류 및 협력관계 증진에서도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공동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민간 및 국가 부문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민족 정체성 형성이라는 기본적인 작업도 병행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넘어 민족통합의 근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

전 호주 산업자원부 심의관
현 일본 아시아경제문화연구소 이사

CONTENTS

Weekly_2009.04.01_No.5(통권 106호)

기획특집

09 경제위기 극복할 新성장동력

재외동포의 힘

정부는 올해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숙원이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지난 2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회복됨으로써 내국인과 재외동포들의 거리도 더욱 가까워졌다.

10 **'한민족 Buy Korean 운동' 출범**
경제 위기 때마다 빛난 재외동포들의 母國 사랑

12 **재외동포 단체 현황**
169개국에 2600여 개 단체, 타향 시름 달래고 사업정보 공유

18 **인터뷰**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재외동포는 최고의 외교사절"

20 **재외동포 네트워크**
700만 동포 온라인으로 끈끈한 유대

24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
40년만에 되찾은 한 표 권리, 그보다 더 큰 자긍심 얻었다

26 **재외동포들 "정부에 바란다"**
"참정권 대환영… 투표소 늘려야"

표지 설명 '힘내라 대한민국' 문구가 새겨진 수많은 연등이 조계사 대웅전 앞을 밝히고 있다.

알림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1 Reader & Leader 윤영곤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04 **독자 공감 & 정책 퀴즈**

06 **포토 뉴스** WBC 감동의 순간

08 **이명박 대통령 〈WSJ〉 특별 기고문**

28 **특별기고**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30 **이슈 해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말하는 추경 편성 의미

32 **경제 시론** 한 · EU 자유무역협정에 거는 기대

34 **정책브리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대사 탤런트 조재현
"진료비 확인제로 환자 권리 찾으세요"

36 **글로벌 코리안** 비보이팀 '갬블러' 리더 장경호
서태지를 좋아하던 소년, 할리우드를 춤추게 하다

38 **스타 퍼블릭 서비스**
20년 한결같은 봉사의 삶, 탤런트 '情' 애리

40 **공기업 선진화 현장** 한국수자원공사
나눔경영으로 경제회생 힘 보탠다

42 **미래성장동력** 판 커지는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시장
2018년 세계 톱5로 '藥' 올려라

3大 연중기획

44 **녹색성장** 친환경 옷 입은 IT건물 '누리꿈스퀘어'
태양광으로 정원 가꾸고 지열로 냉난방

46 **생활공감 국민행복**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
100명의 상담 도우미 "110% 만족 드려요"

48 **규제합리화** 고용시장에 변화 줄 연령차별금지법
나이 많다고 차별? 이젠 그럴 일 없어요!

50 **공감 라운지**

51 **서평** 〈자유를 위한 희생〉

52 **민생지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들

54 **지역의 재발견** 전남 영암

56 **걷고 싶은 길** 거제 지심도 동백숲길

60 **꼭 챙기자! 리크루트 정보** 고령자 인재은행

61 **알면 돈 되는 알짜정보** 희망키움뱅크

62 **KTV 속으로** '청년시대 실크세대' MC 개그맨 안상태

64 Culture 36.5

발행일 2009.4.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주)삼화인쇄 **배포문의** 02-3704-9992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바로잡습니다
3월 25일자 〈Weekly 공감〉 No. 4(통권 105호) 35쪽 좌측 하단 내용 중 '부산시청 시민봉사과 기록보존실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는 이수영(31) 씨' 부분의 '이수영(31) 씨'를 '이상협(31) 씨'로 바로잡습니다.

〈Weekly 공감〉 3호(3월 18일자) 특집은 '대역사 첫발 디딘 경인운하' 였습니다. 경인운하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독자 제안을 소개합니다.

경인운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juli7(이호헌)

모든 일은 정(正)·반(反)·합(合)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경인운하 착공 후 반대하는 것은 합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운하 완공 후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혹시나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주변을 최고의 주거단지로 꾸며주셔서, 강남에 편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주십시오. 이미 포화상태인 아파트가 아니라 '타운하우스'를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주변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운하가 들어서는 곳이니만큼 '국제고, 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해주셔서, 경인운하 주변에 주택 수요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여건에 따라 주택 수요가 창출됩니다.

●●● 위와 같이 이뤄진다면 운하 주변은 강남 못지않은 곳이 될 것이고, 마리나 시설의 수요도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 어디를 가도 요트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내에 그런 설비가 없으므로 아까운 외화를 해외에 뿌리며 요트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도 국내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경인운하는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중국으로 왕래하는 통로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은 주말에 어디 놀러 갈 데도 없고 막상 가려면 차가 막힙니다. 일요일 오후면 강화도 놀러 갔다오는 사람들로 48번국도 상행선이 꽉 막히고, 둑길도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경인운하는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운송수단으로서의 경제성만 논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위에 호텔과 각종 위락시설을 만들어 5분 거리인 김포공항과 연계하기 바랍니다. 활용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경인운하가 중요한 이유는 육·해·공이 밀집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도시는 물과 인접했거나, 물을 잘 활용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조성계획이 마련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하 주변에 당연히 투자하고 거주할 것입니다. 한 지역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주거하고 싶으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경인운하를 강력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조감도.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글이 선정된 독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라운드의 마에스트로 김인식

매직 용병술로 세계를 홀렸다

●●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 김인식 감독이 말한 '위대한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독자들의 격려성 댓글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한국대표팀에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선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준우승이지만 우승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_ 아카시아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야구인입니다.
이번 WBC를 통해 한국 야구가 강하다는 걸 널리 알렸습니다.
제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야구장 시설을 개선하고 돔구장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경기도 일으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으니 부탁드려요.
_ jewel0609(장태훈)

●● 〈Weekly 공감〉 3호(3월 18일자)에 실린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이너 윤일헌 씨에 대한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격려와 부러움이 섞인 댓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윤일헌 디자이너가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에 박수와 저의 존경심을 보냅니다. 저도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헌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메르세데스벤츠 SLR 스털링 모스', 제가 가장 먼저 타겠습니다!^^ _ 이승훈

주요 정책들을 알기 쉬운 퀴즈로 만나보는

Korea.kr 정책퀴즈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 대항력을 키우고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육성하는 정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미래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기 위한 □□□□ 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붕괴 위험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산층을 키우는 나라야말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산층 대책을 □□□□ 정책 기조 하에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 육성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정부는 □□□□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을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 중점과제 및 추진체계

비 전

□□□□ 통한 사회통합 강화와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 3대 정책분야 핵심과제

정책분야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
기본방향	1. 일자리 유지 노력 2. 가계부담 경감	1. 개인역량 보전·강화 2. 일을 통한 빈곤 탈출	1. 가난 대물림 끊기 2. 인적역량 강화
핵심과제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가계부담 경감 ● 가구 소득원 확대	● 미래 지향적 직업 교육 훈련강화 ●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 창업 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 촉진 예) 1인기업 창조기업	● 공교육 경쟁력 제고 아동·청소년 투자 확대 ● 인적 자본 투자 강화

'중산층 탈락방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소득원 다양화,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중산층 육성'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빈곤 대물림을 끊고 청소년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후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부담을 줄이는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www.korea.kr 정책퀴즈에 들어가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4월 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힌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과 USB(8GB)를 드립니다.

LA에서 서울까지 “힘내라 대한민국”

야구 앞에서 대한민국은 하나였다. 광활한 태평양도, 종교의 장벽도 ‘위대한 하나됨’을 막을 수 없었다. 위기 상황에서도 힘차게 그것을 극복해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은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 희망이라는 공을 던져줬다.
그래서일까. ‘힘내라,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우리들 가슴속 ‘별’이 된 야구대표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연합

연합

1 제2회 WBC 결승전이 열린 미국 LA 다저스타디움에서 많은 우리 교민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2 응원 열기는 태평양 너머로도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힘내라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
3 5회 말에 터진 추신수 선수의 홈런포는 경제위기로 지친 국민들의 근심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한방'이었다.
4 응원은 함께 해야 제 맛이다. 잠실야구장에 모여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는 야구팬들.

한국이 금융 위기를 해결한 6가지 원칙

"G20회의, 부실자산 제거에 초점 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27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지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과 관련, 특별 기고문을 실었다. 이 대통령의 〈WSJ〉 기고문 전문을 소개한다.

작년 11월 워싱턴에 모인 G20 정상들은 금년 1/4 분기말 경이면 세계가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당시, 정상들은 세계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대책, 특히 재정확대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 각국은 아직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힘든 여정을 밟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은행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온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를 모든 분들과 함께 바라면서, 동시에 모든 국가들이 경제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유동성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다음 주 런던 G20 정상 회담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고, 또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한국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부실자산 처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치보다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처리 경험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1997년에서 2002년에 걸쳐 1997년 GDP 대비 32.4%에 해당하는 1276억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의 경험에 따르면 은행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산관리공사(KAMCO)라는 특화된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한편으로는 예금보험공사(KDIC)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업무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KAMCO는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자산가치가 회복되면 관련 금융기관들과 손익을 정산하였습니다. 2002년까지 장부가격으로 851억달러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309억달러에 매입하여, 이후 공매, 직접매각, 국제입찰, 증권화, 출자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투자자들에게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2008년까지 339억달러를 회수하였습니다.

셋째, 부실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와

연합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경영진, 근로자, 기타 자산 보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특별 메커니즘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시스템차원에서 중요한 기관이나, 자본 확충 이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융기관에만 자본 투입이 이뤄졌습니다.

넷째, 부실자산 정리 대책들은 시한이 명기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built-in exit strategies and incentives)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민간 부문에 매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 국유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시적인 조치로 취해져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분명한 점은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은 잠정적인 기간에 정부가 문제의 금융기관과 합의한 가격에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재매각 후에 해당 금융기관과 손익을 정산하는 것이 유용한 방안임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의 부실자산 문제는 부외자산과 연계된 파생상품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는 다른 측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사후정산방식이 더욱더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는 배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들이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공통의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사이의 일상적 자본 흐름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공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취지에서 G20 재무장관들이 한국의 제안을 반영한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같은 원칙들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거시경제적인 경기부양책도 심각한 경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G

경제위기 극복할 新성장동력

재외동포의 힘

세계 곳곳에 한민족이 살고 있다. 169개국에 700만명이 새로운 터전을 가꾸며 살고 있다. 재외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중국과 이스라엘이 자국동포인 화교와 유대인들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듯이 우리도 재외동포들과 힘을 합쳐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숙원이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지난 2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회복됨으로써 내국인과 재외동포들의 거리도 더욱 가까워졌다.

경제 위기 때마다 빛난 재외동포들의 母國 사랑

전 세계 한인 상공인 단체 "한국 제품 사고 한국에 투자" 나선다

재외동포와 내국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바퀴다.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교민들과 만날 때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700만 재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동포사회를 민족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족 네트워크'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가 글로벌화하고 정보화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민족 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화교와 유대인의 네트워크 외에도 인도, 이탈리아, 일본 등도 끈끈한 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위기극복에 앞장서왔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일동포 청년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참전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후에는 한국의 산업현장에 무료로 기술을 전수했다. 서울 구로동 수출공단, 포항제철은 재일동포의 공헌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재미동포 역시 외화 송금 등을 통해 연간 약 30억 달러를 본국으로 보내며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의 세계화 시발점이 된 '포니'의 미국 진출에도 재미동포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제주도가 오늘날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데에도 제주도 출신 교포들의 고향애가 한몫했다.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모국이 어려움에 처하자 재외동포들이 또다시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 세계 한인상공인 단체와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한국 제품을 사고 한국 기업에 투자하자는 '한민족 바이 코리안(Buy Korean) 운동'에 나선 것이다.

고용 창출, 성장 촉진, 국가브랜드 제고 등 '一石多鳥'

이 운동에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련), 재중국한국인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 재일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재중국한인상공인연합회, 미주한인상공인단체총연합회, 캐나다한인무역인회, 중남미세계한인상공인단체총연합회, 재호주한인상공인단체총연합회, 러시아CIS지역한인상공인엽합회, 동남아한인상공인연합회, 중앙아시아한인상공인연합회, 아프리카한인상공인연합회 등 많은 재외동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흥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이 힘을 보탰다. 한민족

재외동포들이 힘을 합쳐 한국 제품을 사고 한국 기업에 투자하자는 '한민족 바이코리안 운동'에 나섰다.

동아DB

재외 한상과 한국 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것이 바로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바다. 사진은 미국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거리 풍경.

바이 코리안 운동은 3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이 운동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외화 유입을 통해 한국의 외환 사정을 안정시키고, 주식과 기업에 투자를 장려해 고용을 창출하며, 해외 참가단체와 연결해 한민족 바이 코리안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내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국가브랜드를 고양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운동의 공동준비위원장인 이갑산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는 “금고 속에서 잠자는 외환을 위기극복에 내놓자는 한민족 1인 1외환통장 갖기 운동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청계광장을 비롯해 LA와 뉴욕, 도쿄, 오사카, 시드니 등에서 ‘외환 깨우기 운동’ 행사를 벌이려 한다. 이밖에도 바이 코리안 사이트를 개설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전 세계 한민족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2월 말 집계로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704만명에 이른다. 세계 8위 수준으로 적지 않은 숫자다. 더욱이 유대인이 미국과 유럽에 치중해 있고 화교가 동남아시아에 집중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에 80%가 거주하며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해 있다. 일본 재외동포의 경우 농촌형 이민이 많지만 한국 동포들은 도시형이 많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유리하다. 게다가 주류사회로 편입된 2, 3, 4세들이 학계와 정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큰 자산인 셈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 뒤에는 화상(華商)과 인상(印商)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3000만여 명에 달하는 화상에 힘입어 화교 상권은 유대인 상권에 이어 세계 2위 민족상권을 구성하고 있다. 화상 자본의 활발한 투자는 중국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00대 韓商 2006년 총매출 32조원 규모

우리 한상(韓商)도 많이 성장했다. 300대 한상의 총매출이 2006년 기준 32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3.8% 규모에 이른다. 한국 기업들의 큰손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재외 한상과 한국 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것이 바로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바다.

지식경제부는 해외한인무역협회(OKTA)와 연계해 연내에 세계 각지 한인 무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데이터베이스(DB)화함으로써 동포 경제·무역인들을 중소기업들의 수출 네트워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재외동포 청년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하고 연내 30명 정도를 선발해 시범운영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해외 청년인력은 기본적으로 현지 언어가 능숙한 데다 무역마케팅 경험까지 있는 경우 국내에서 간단한 실무와 연수를 실시하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코트라(KOTRA)의 조직망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인 무역인들로 하여금 현지 시장동향과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거래를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연내 미국 시애틀과 중국 선양 등 15개 내외 지역에서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매년 10월 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 제정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한곳에 모으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의 강인한 민족성과 끈끈한 네트워크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G

글 · 최호열 기자

169개국에 2600여개 단체 타향시름 달래고 사업정보 공유

전 세계 169개국에 700만 명이 넘는 한인이 살고 있다. 재외동포 단체만 해도 2600여 개에 달한다.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와 재외동포 개개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7 한인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에 참가한 재외동포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태극기와 거주국 국기를 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년에 한 번씩 재외동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최신 자료인 2007년 말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69개국에 704만4716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삶의 터전은 바뀌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한국인으로 살아간다. 피부색이 달라지거나 정체성이 바뀔 수는 더더욱 없다. 따라서 한번 한국인은 영원한 한국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인들끼리 모이게 된다.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집계한 재외동포 단체만 해도 전 세계에 걸쳐 2600여 개에 이른다. 경제, 문화, 한인회, 언론, 종교, 향우회, 학술 등 그 영역도 다양하다. 한인들은 이들 단체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정보를 나누고 타향살이의 외로움도 달랜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재외동포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민주평통 해외지역협의회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기반조성을 위한 중심세력으로서 해외조직인 해외 지역협의회를 더욱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출범하는 14기 자문위원 중에서 해외 몫을 현재의 58개국 1977명에서 109개국 26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협의회 관할지역의 재외동포 주요 인물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공한 동포 기업인과 주류사회에 진출한 전문가그룹 간, 재외동포 1세대와 차세대 간, 현직 자문위원과 전직 자문위원 간의 교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평통은 오래 전부터 재외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여왔다. 대표적인 것이 재외동포사회 차세대 그룹 지원 사업이다. 젊은 자문위원들이 조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역할을 확인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세대 지도자 포럼을 매년 열고 있는 것. 올해도 북미와 일본에서 현지 차세대 대표자 합동포럼을 여는 것은 물론 해외 각 지역협의회 차세대 리더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행사를 10월 중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 전문가 포럼'을 만들어 해외 현지 한반도 전문가 및 정·관계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엔 시애틀, 시드니, 뉴욕 등에서 포럼을 개최했으며 올해에도 워싱턴과 마드리드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설립된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 전담기관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추구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사실상 주도할 기관이기도 하다.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 모국어 교육지원 확대,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 육성, 한상(韓商)의 인적 자산화, 내외동포 교류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코리아 실현, 온라인을 통한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등을 올해의 5대 사업 목표로 정했다"며 "특히 재외동포 2, 3세의 민족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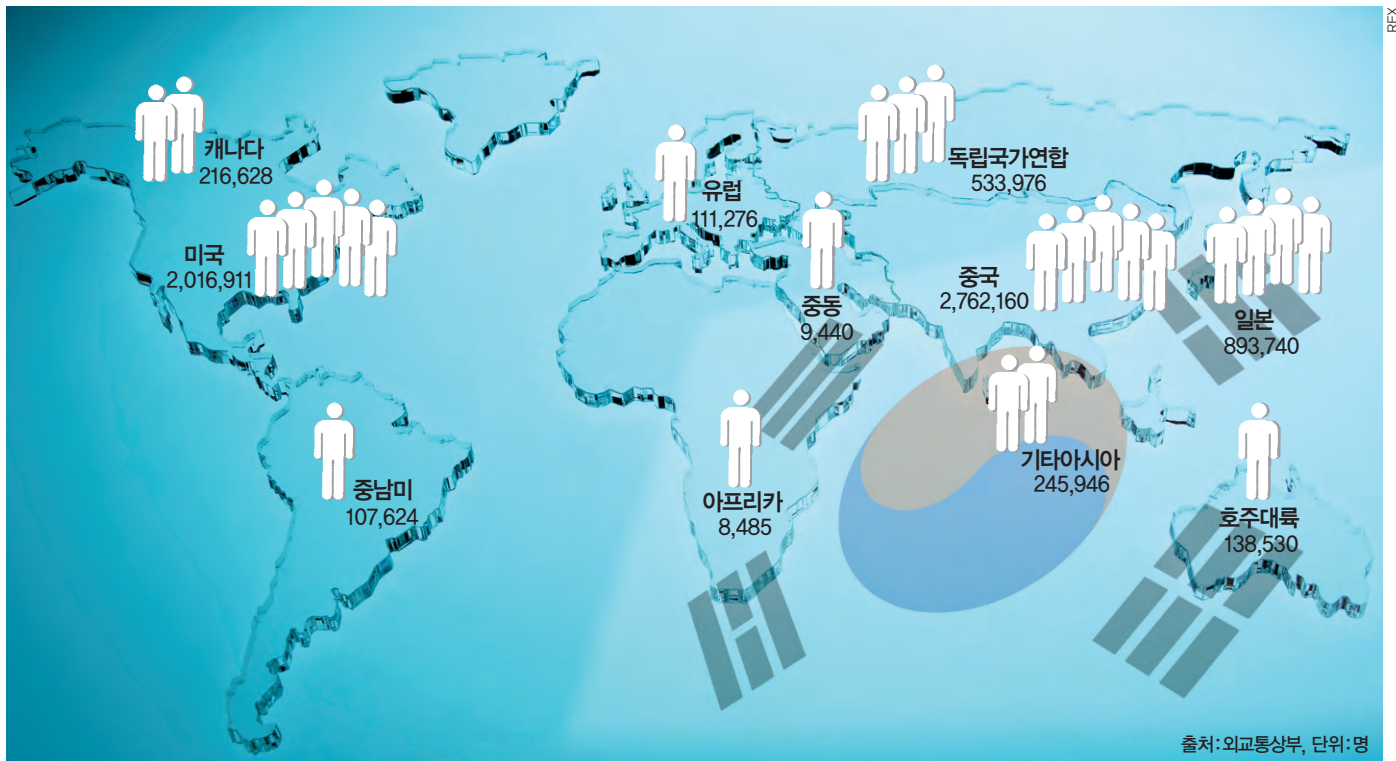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글학교 지원 등 교육문화사업과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를 들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모국연수는 전통문화 체험과 함께 한국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모국애를 심어주고 있다.

해외순방 중 재외동포 어린이에게서 꽃다발을 받는 이명박 대통령.

재미 2세대 네트워크 '넷캘'의 힘

미국 내 2세대 네트워크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넷캘(NetKAL · Network of Korean American Leaders)이다. 모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영어에 능통하며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한인 2세대로 구성된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다. 대부분 하버드대나 프린스턴대, UC버클리대 등 명문대 출신으로 글로벌 기업이나 정계, 사회단체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30, 40대 인재들로 구성돼 있다. 네트워크 핸드북인 'Net Gains : handbook of network'에 7쪽에 걸쳐 소개될 정도로 네트워크의 새로운 본보기가 되고 있다.

넷캘의 네트워크 파워가 드러난 것은 버지니아공대 조승희 씨 총격사건 때였다. 당시 1세대 위주의 한인회장 등이 "같은 한인계로서 이 사건에 대한 비통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과성명을 내고 한인들의 공개사과 같은 장면들이 CNN 등 미국 주류 언론에 공개되자 넷캘 펠로들은 이것이 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전국적인 한인 비정부기구(NGO)인 한미연합회(KAC · 소장 찰스 김) 등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에 기여했다.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2007년 말 기준)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차세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정치, 경제, 법률, 언론, 국제기구 등 거주국 내 주류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재외동포들을 초청하는 '세계한인 차세대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모국과의 교류와 재외동포 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열린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에 참가했던 김지혜 미국변호사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만나고 고국을 알게 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경제 분야다. 한상(韓商·세계 각지의 한민족 경제인)들은 자신과 모국의 이익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한상네트워크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경제단체를 연결하고, 모국과 재외동포 경제인을 연계해 세계적인 한민족 경제공영권을 실현하자는 취지를 갖고 시작됐다. 특히 해마다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는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2002년 제1회 대회 때는 28개국 968명(해외 852명)이 참가해 3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그쳤으나, 2008년 7차 대회 때는 35개국 3340명(해외 1337명)의 기업인이 참가해 5억6000만 달러 규모의 상담(계약금액은 5900만 달러) 실적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10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40개국 3700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이 참가하며, 400여 개의 비즈니스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중국 신장에 있는 우루무치한글학교.

민주평통 미동부협의회 회원들.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는 전 세계 한인단체 중 가장 큰 단체다. 1981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 한인 무역상 조직으로 결성됐다. 조국의 무역 증진과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4년 사단법인으로 발전해 전 세계 58개국 106개 지회에 회원 6000여 명을 두고 있다.

OKTA는 매년 '해외 한민족 경제공동체대회'를 열어 국내 거래처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에 해외시장 마케팅 정보를 제공한다. 해마다 개최지를 국내와 해외로 번갈아가며 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OKTA와 연계해 세계 각지 한인 무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데이트베이스화함으로써 동포 경제·무역인들을 중소기업들의 수출 네트워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지사(코리언 비즈니스 센터·KBC)가 없는 미국 시애틀, 중국 선양,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15개 지역에 대해 OKTA 네트워크를 지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OKTA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포 2~4세대들을 차세대 한상으로 키우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 광주에서 열리는 OKTA 대표자회의와 10월에 개최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평통은 해외조직인 해외 지역협의회를 더욱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출범하는 14기 자문위원 중에서 해외 몫을 현재의 58개국 1977명에서 109개국 26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민족 무역거래망(www.koreantrade.net)은 국내 최초로 해외 동포기업과 국내 기업의 무역 및 비즈니스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거래전문 사이트다. 무역협회가 2006년 11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교포기업 1만8000여 건, 국내 기업 6만6000여 건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150만 건 이상의 거래 알선 의뢰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등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場)이 되고 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는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해외 여성 최고경영자(CEO) 인력 발굴과 상호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45개국 900여 명이 참석했다. 2007년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오는 8월엔 인천에서 20개국 500여 명의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 '차세대 한민족 여성경제인 활성화 방안'을 대주제로 한국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그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14개 지역담당관 및 재단법인을 통해 지역별 상시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www.hansangkorea.com), 소상공인네트워크(www.dure21.com),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www.inke.org)도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경제 네트워크 못지않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과학기술분야다.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www.kosen21.org)는 1999년 과학기술부(MOST)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국내외 과학기술 협력과 정보교류 기반 형성

한국국제협력단 과테말라에 IT훈련원 만들어줘

한국과 과테말라 정부가 함께 지은 중미 최대 규모의 '한국 · 과테말라 정보통신기술(IT) 훈련원'이 3월 18일(현지 시각) 과테말라 수도인 과테말라시 중심부에서 문을 열었다. 연면적 31만2000㎡에 7층 규모인 이 훈련원은 한국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지원한 무상원조 자금 250만 달러와 과테말라 정부예산 350만 달러로 완공됐다. 훈련원은 앞으로 과테말라 IT산업 인력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테말라 정부는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IT 훈련원 건립을 계기로 중미지역의 IT 선도국가로 발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KOICA는 IT훈련원 프로젝트를 통해 훈련원 신축 외에 웹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CAD, CAM 등 각종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삼성, LG, 주연테크의 다양한 국산 기자재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어서 한국 IT기술의 중미지역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1991년 설립된 KOICA는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과테말라 IT훈련원 개원식 모습.

한글학교는 전 세계 한인들에게 모국애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위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다. 현재 40개국 5만여 명의 과학기술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우수한 해외 인력을 연결해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네트워크에는 미국 일리노이대 강성모 교수, 하버드대 박홍근 교수 등 세계적 석학도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해외 회원 가운데 50%는 박사급이며, 이들이 전문 자료와 논문 등을 분석해 올리는 지식정보는 이 사이트의 압권이다. 지금까지 6만여 건의 정보 교류와 6000여 건의 전문정보가 이곳에서 생산됐다. 이 중엔 기업의 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활용된 것도 많다.

〈연합뉴스〉가 운영하는 한민족센터(koreancenter.or.kr)는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한국을 연결하는 소통 채널이다. 〈연합뉴스〉와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옛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OKMedia)가 생산하는 국내외 한민족 관련 뉴스와 정보 등의 콘텐츠를 공급하며 각급 정부기관, 단체 등의 한민족 관련 데이터를 수집,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는 한인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민족 동질성과 정체성 회복의 구심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2002년 결성됐다. 40여 개 회원사로 출발해 지금은 150여 개로 늘어났다. 해외 사이트 등에서 '한국 오류 바로잡기 한국 바로 알리기 운동'과 재외동포 언론네트워크 구축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한인정치인포럼(회장 신호범·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임용근·미국 오리건주 상원의원) 등 정치인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재외동포 교류 협력사업 실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재외동포 네트워크 기관들이 벌이는 재외동포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사례가 많고, 전시성 행사로 끝나는 사업도 많다. 범정부 자원에서 통합된 재외동포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G

글 · 최호열 기자

정부 부처와 재외동포 네트워크 기관들이 벌이는 재외동포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사례가 많고, 전시성 행사로 끝나는 사업도 많다. 범정부 자원에서 통합된 재외동포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화교 · 유대인의 초국적 민족 네트워크 따라잡기

많은 국가들이 초국적 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외동포의 역량을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교와 유대인이다.

화교 경제인들로 구성된 세계화상네트워크는 13만 개 기업의 정보를 수록, 중국 본토와 화상들을 연결하고 있다. 전 세계 130여 개국에 걸쳐 6000만여 명이 활동 중인 화상은 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유동자금으로 중국 경제부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여기엔 덩샤오핑의 정책이 주효했다. 개혁·개방정책을 펴려 했지만 외국 자본이 잘 들어오지 않자 화교들을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삼고, 1989년 당시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와 손잡고 세계화상대회를 출범시켰다. 세계화상대회는 2년마다 세계 각지를 돌며 열리는데, 서울에서도 2005년 개최됐다.

화교 자본을 바탕으로 중국은 지난해 말 러시아에 200억~250억 달러를 대주기로 한 데 이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긴급 총리회담에서는 회원국에 저리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SCO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다. 이란, 인도, 파키스탄, 몽골 등 4개국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은 이들 국가들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화교 네트워크는 막강하다. 특히 중국계 정치 리더들의 네트워크인 '100인위원회(100 Committee)'는 독특한 정치적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 등의 여론조사를 통해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1300만명 규모의 유대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유대인 네트워크 덕분이다. 특히 유대인은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장악한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언론 등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 등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 상당수가 유대인이며, 〈월스트리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류 언론과 금융가 또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유대인 역시 3500여 개가 넘는 미국 유대인단체를 비롯, 국내외를 무대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대인 글로벌 네트워크로 세계시오니스트기구(WZO), 세계유대인회의, 유대인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이 있다. 1936년 결성된 '세계유대인의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80여 개국에 흩어진 유대인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내에는 회원 15만명의 국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해 '세계 외교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미국유대위원회(AJC), 로비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IPAC) 등이 있다. AIPAC은 기부문화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힘을 키워 초당파적으로 이스라엘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인도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990년대 이후 실리콘밸리 등에 진출한 인도 출신 엔지니어들과 기업인들이 '인상(印商) 네트워크'를 결성해 본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도 정부도 인도인 카드 도입, 재외동포연구센터 설립, 재외동포위원회 구성 등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1992년 이중국적을 인정한 데 이어 제한적 참정권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화교는 끈끈한 네트워크로 중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사진은 한상(韓商)과 화상(華商)의 국제회의.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재외동포는 최고의 외교사절"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 '민족자산화' 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각 부처마다 다양한 재외동포 네트워크 사업을 내놓고 있다.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향한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통일정책 수립을 돕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민주평통의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최근 홍콩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열린 해외강연회에서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체가 되는 것이 민주평통의 시대적 역할"이라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7선 의원 출신인 이 부의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민주평통을 이끌고 있다.

"한민족 네트워크, 문화 · 경제 공동체로 발전할 것"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는 우리 민족 특유의 혈통과 언어, 전통, 역사, 관습 같은 문화적 공통성을 가진 한민족 구성원들을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네트워크로 엮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대감과 귀속감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는 궁극적으로 한민족 구성원들의 생존, 안녕, 번영, 복지를 보장하는 문화 · 경제 공동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부의장의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열정은 확고하다. 당장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14기부터 현재 31개인 평통 해외지역협의회를 35개로 확대하고, 1977명인 해외 자문위원도 26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자문위원이 거주하는 국가 수도 현재 58개국에서 109개국으로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대대적으로 해외조직을 확대하는 셈이다.

"인적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넓혀 사통팔달식 정보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민주평통은 이를 위해 전 세계 한민족 구성원과 상시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 정보화 라인에 민주평통의 활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남북관계, 북한의 현실, 해외 한민족 소식을 전달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할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외민주평통 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생각입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외동포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과의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많은 부처가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들은 모두 고유의 전문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재외동포 무역인, 경제인, 과학기술자, 정보기술(IT)인력, 여성, 벤처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하지만 통일과 관련해서 재외동포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재외동포들까지 직접 회원으로 임명하고 세계 35개 주요 도시에 사무실과 오프라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정부기구는 우리뿐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해외협의회 사무실에서는 연중 내내 일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정부 부처의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다른 차별성입니다.

저는 다른 부처에서 재외동포를 상대로 사업을 할 때 우리 해외협의회 사무실을 거점으로 이용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공간을 일종의 '사랑방'처럼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외동포들도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은 재외공관보다는 평통 해외협의회 사무실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할 겁니다.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해당국 재외동포 사회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있습니다. 저와 김대식 사무처장이 해외 현지에서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통해 동포사회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알리고 통일역량을 결집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 후계세대를 양성하는 차세대 동포사업이 있습니다. 차세대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각 협의회의 차세대 리더를 협의회당 한두 명씩 모두 50여 명을 국내로 초청하는 차세대 대표자 포럼을 올해 두 차례 열 계획입니다. 미국, 일본 등 현지에서도 같은 행사를 두 번 정도 열 것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치참여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가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초당적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이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냉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평통 자문위원의 75%가 시민권자여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평통이 선거 국면에서 동포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외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국제사회는 민간외교가 훨씬 큰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들이 소속 정부나 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정보와 인맥에 밝기 때문에 모국과 협력해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일본인, 중국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동포자원을 이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자신들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일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 이런 일을 해낼 때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될 것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해당국에서 1등 시민이 될 것입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교민과 만난 자리에서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약속했다. 동아DB

700만 동포 온라인으로 끈끈한 유대

내년까지 코리안넷 개편… 한상 네트워크, 통합 인물DB도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700만 재외동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 3일 뉴질랜드 교민들과 함께한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700만명 전부 서로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해 유기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자료를 만들겠다”며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다음 날인 3월 4일 호주 교민들과 함께한 동포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700만 전 세계 교민들을 모두 전산화해 호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외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재외동포들이 쌓은 각종 전문지식과 사업 노하우 등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이를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된다.

동아DB

한국을 방문한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3월 17일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1차 보고회의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00만 재외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 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재외동포의 역량 및 동포사회와 모국 간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강화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 특히 네트워크 교류협력 사업은 과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펼쳐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행사 중심으로 네트워크 운영을 하다보니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네트워크 사이의 횡적 연계가 부족해 무역, 상공, 과학기술, 여성, 통일 등 일부 분야 네트워크에만 편중돼 있었다.

재외동포 인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정보가 흩어져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낮았고, 활용 실적도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 일부 분야는 아예 DB조차 구축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를 평가했다. 그 결과 재외동포 교류의 문제점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조정 기능 미약 △온라인 교류 사이트 구성원 참여 부족 △재외동포 2, 3세대 대상 교류와 문화 및 한글 보급 등 투자 미흡 △재외동포 인재 국내 영입 및 통계정보 구축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 차관이 맡고 있던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총리실 국무차장이 맡아 실질적인 재외동포 정책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범정부적 연간계획과 사업의 조정 및 통합 기능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또한 한상(韓商), 무역인, 과학자 등 기존 재외동포 네트워크 외에 금융, 의료, 농업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단계별, 연차별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수록한 '재외동포 교류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해 각 부처별 중복사업을 전략적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국어 보급, 국내 인터넷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재외동포 2, 3세대의 민족 정체성을 높이고 부처별 유관 네트워크와의 정책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단체 등이 기반조직과 국가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주도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통합 관리를 위해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Korean.net)'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직까지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지 않은 전문 분야, 특히 금융, 의료, 에너지, 광업, 농어업 분야의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존 재외동포 네트워크 및 국내 관련 분야 네트워크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 김혜연 서기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목표는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호혜적 발전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와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네트워크 구축은 재외동포의 규모를 확대하고 역량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동포사회와 모국 간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우수 역량을 갖춘 각 분야 동포들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국가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해외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쌓은 전문지식과 사업 노하우 등을 극대화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구상이 올해부터 구체화된다.

통합 네트워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재외동포 대상 정보제공 대표 사이트인 코리안넷(www.Korean.net)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통합 인물 DB 구축 등이다.

각종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를 코리안넷에 연계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는 온라인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코리안넷을 명실상부한 정부, 내국인,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핵심 웹 페이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물론, 코리안넷에 연계된 사업을 벌여나가게 된다. 그리고 내년까지 코리안넷을 개편하고, 한인회 등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와 연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재외동포

재단의 동포포털 코리안넷 사업에 앞으로 3년간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70여 개국의 600여 개 한인회 사이트를 코리안넷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코리안넷상에서 전 세계 한인회에 통일된 도메인 명칭을 부여하는 글로벌 도메인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인회 등 상대로 통일된 도메인 부여 사업 추진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팀 강윤모 차장은 "3월 현재 약 30곳이 도메인 신청을 했다. 올해 말까지 200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메인 사업은 한인회뿐 아니라, 한상 등 재외동포 경제단체, 지역 한글학교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머지않아 전 세계 한인 재외동포들의 활동상을 코리안넷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코리안넷은 현재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앞으로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서비스 언어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한상네트워크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로 확대해 연중 상시 교류 및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한상경제정보센터 설립을 통한 사이버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이버 한상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계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중국 화교의 '세계화상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셈이다.

각 부처 기관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분야별, 지역별 주요 재외동포 인물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우수 인적자원을 관리하기로 했다. 어느 기관에서 이를 통합 관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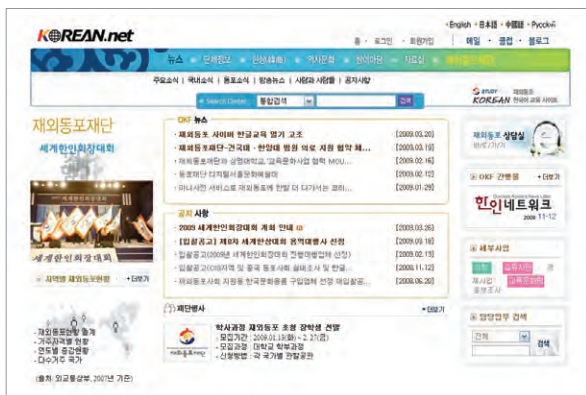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해외지역 협의회별로 관할지역의 재외동포 주요 인물 DB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공한 동포 기업인과 주류사회에 진출한 전문가 그룹 △재외동포 1세대와 차세대 간 교류 활동 △현직 자문위원과 전직 자문위원 간 교류활동 등이다. 지식경제부도 해외한인무역협회(OKTA)와 연계해 연내에 세계 각지 한인 무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DB화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은 170여 개국의 600여 개 한인회 사이트를 코리안넷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코리안넷상에서 전 세계 한인회에 통일된 도메인 명칭을 부여하는 글로벌 도메인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DB는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넣고, 업데이트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으로 만드는지에 생명력이 달려 있다. 활용가치가 없는 DB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DB 시스템 기획 및 DB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DB 시스템 구축과 기관별 분산 DB를 통합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9차 재외동포

동아DB

지난해 10월 열린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한상 리딩CEO들이 화합과 교류, 협력을 다진다는 의미로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코리안넷은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구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책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재외동포정책을 선정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 1996년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유대 증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출생, 입양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과학, 문화 등 특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 인력에 한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제 입국 인원을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일기업체에서 4년6개월 이상 근무한 재외동포에게는 영주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며, 중국과 CIS 지역 우수 재외동포를 유치하기 위해 동포 기업가 자녀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 위해 교육·문화 교류 확대

한인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해 교육 및 문화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필리핀, 중국 산둥성의 웨이하이 등 일시 체류민 증가 지역에 한국학교를 신설하고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사업(Talk)을 확대(2008년 380명→2009년 700명)해나가기로 했다.

해외입양인에 대해서도 '입양 이후 현지정착 지원(학령기)' '뿌리 찾기 지원(청소년기)' '국내 체류생활 지원(성인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정착을 돕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정착지원 단계에서는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입양부모 자녀의 지도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뿌리 찾기 단계에서는 뿌리 찾기 원스톱 시스템 운영, 뿌리 찾기 목적 국내 체류 및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내 체류생활 단계에서는 취업 및 생활 적응 지원, 상담자료 제공, 한국어 학습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G

글·최호열 기자

양창영 한민족 바이 코리안 운동 공동준비위원장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新성장동력"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여파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던 희망과 기대 또한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듯하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한 특유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다시 한번 결집하고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개척해나갈 지도력을 갈망하고 있다. 국내외 7000만 한민족이 힘을 합쳐 세계화시대에 대처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현 정부의 출범에 품었던 희망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

아일랜드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자국의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조차 어려웠다. 1990년 메리 로빈슨은 아일랜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해외 모든 동포들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그들의 앞날에 행운을 빈다는 의미로 대통령궁에 매일 횃불을 밝혀놓았다. 이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아일랜드인들은 감동했고 조국 돕기 운동에 앞장섰다.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아일랜드 상공인들이 너도나도 조국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조국 경제 건설에 이바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리더십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찰스 호히 총리의 열성까지 더해져 유럽에서 가장 살기 싫은 나라 아일랜드는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도 세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비전과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필요한 여건과 지원책도 적극 조성해야 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700만 재외동포들은 그동안 이국땅에서 갖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 지역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개척정신, 창조성, 한민족 특유의 근면성과 친화력으로 일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조국의 위상이 됐고, 국력의 상징이 됐다. 그리고 이들의 경쟁력은 바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재외국민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며, 이는 곧 재외동포들이 국가에 대한 귀속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국가 발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현지 사회에서 세계화의 첨병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재외동포들 역시 조국과 민족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인식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시대적 대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21세기 위대한 한민족시대의 다양한 주역으로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40년만에 되찾은 한 표 권리 그보다 더 큰 자긍심 얻었다

재외동포의 오랜 바람이 이뤄졌다. 2012년부터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재외동포 참정권의 역사와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봤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해 240여 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만 19세 이상)이 오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때부터 투표권을 행사한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 선거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세 가지 법을 합쳐 '재외국민참정권법' 혹은 '재외국민투표권법'이라고 부른다.

재외국민참정권법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에만 한정된다. 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해외 단기 체류자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있는 재외국민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들 헌법소원 등 꾸준한 권리찾기 노력 결실

사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66년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위해 해외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다. 이때부터 유신헌법에 의해 제한되기 전인 1971년까지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72년 유신헌법으로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길이 막혔다. 이후 이를 되찾기 위한 재외동포들의 노력은 계속됐다. 1997년 프랑스 및 일본 동포가 헌법소원을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기각 처분했다.

재외동포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2004년 10명의 재일동포가 당시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년 8월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바뀜)'의 일부 조항(제15조 2항, 제16조 3항, 제37조 1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듬해인 2005년엔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총연합회 회원들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동포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률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거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참정권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을 발의했다. 또한 국내외에 조직된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의 당위성과 필요성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동아DB

2012년부터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요구와 추세에 따라 2007년 6월 헌법불합치 판결과 함께 잘못된 법을 바로잡으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보장은 국제적인 추세로서 이미 세계 92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터키 등 극소수 국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이번 참정권 보장 결정을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동포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대해 73.5%가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은 10.1%에 그쳤다. 또한 재외국민 10명 중 9명이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국민에게 참

정권이 부여되면 '반드시 참여하겠다'가 46.8%, '가급적 참여하겠다'가 42.5%를 차지해 89.1%가 참여 의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토 중심의 국가관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국인이라는 동질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족 중심의 국가관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듯하다. 지구촌 곳곳에 사는 재외국민들의 표심은 각국의 정세와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본 나고야에 살고 있는 주부 백모향(38) 씨는 "지금껏 한 번도 한민족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다"며 "이번 결정이 재외동포들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 한민족을 하나로 결집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자영업자 김정택(51) 씨도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크게 반겼다. 김 씨는 "가족을 데리고 한국을 떠난 지 4년이 조금 넘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모국의 어려움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외환위기 때는 환란극복에 쓰라고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모국으로 보냈어요. 이번 결정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재외동포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더욱 깊어질 것 같아요."(김정택 씨)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토 중심의 국가관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국인이라는 동질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족 중심의 국가관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뉴욕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회사원 김동욱(55) 씨는 "미국에서는 '사적'인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선거에 참여하는 일도 회사 입장에선 공적인 일이 될 수 없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은 반가운 일이지만 투표장소가 공관으로 한정돼 있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100년이 넘은 해외이민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번 결정은 참정권을 열망해온 재외국민들에게 커다란 선물임에 틀림없다. 재외국민들이 어렵게 되찾은 참정권은 한국의 선진화와 한민족 통합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연합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교민 참정권' 환영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

투표 방식이 편리하게 개선된다면 참정권을 행사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찾고 싶다는 재외국민들.

“참정권 대환영… 투표소 늘려야”

동포사회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외국민 참정권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현지 분위기를 한인회 대표와 전문가들에게 들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로스앤젤레스(LA)한인회장을 지낸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남문기(56) 회장은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준 것에 대해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한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참정권을 준다니 다행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관에만 투표소를 마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LA와 인근에 사는 재외동포 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25만명 정도입니다. 투표소가 공관 한 곳뿐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에 다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수백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정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유권자 수와 거주지역을 고려해 기존 공관 외에 추가 투표소를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투표소를 적어도 20군데는 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남 회장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참정권 행사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38년 동안 투표권을 잃었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투표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지원활동도 강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중국적을 인정해 시민권자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참정권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우편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서처럼 한국의 선거일에 쉴 수 없는 데다 직장인들은 근무시간의 제약으로 투표를 위한 장거리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더욱이 미국은 땅 크기도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투표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우편투표 실시로 빚어지는 부작용은 예방장치를 철저히 마련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에 대해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 50개 주 163개 지역의 한인회를 아우르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허상길(48) 행정실장 역시 같은 주장을 폈다. 허 실장은 "참정권 보장 자체는 적극 환영하지만 시대적,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면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참정권 보장으로 재외한인들이 분열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만, 이런 우려가 국민의 기본권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단, 선거에 좀 더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방식을 편리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미국 전역에 공관이 10개밖에 없는데 투표소를 공관으로 한정하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몇 시간씩 차나 비행기를 타고 투표하러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호주시인협회 국제담당이사이자 시인인 윤필립 씨도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우편투표를 적극 추천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21년째 살고 있는 윤 씨는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인 만큼 투표를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우편투표 제도의 발달로 장기 출장자나 병약자, 하물며 복역중인 수형자들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35배에 이르는 광활한 호주 땅에서 한인동포들의 투표율을 높이려면 우편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도 검토해볼 만

그는 또한 "호주는 200여 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여서 시민권을 가진 이민자들이 출신 국가의 선거에 참여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며 "특히 이민자 수가 많은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에서 중요한 선거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수십만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주를 관할하는 미동북부한인회연합회 이경로(51) 회장은 먼저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지만 내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어본 적이 없다. 재외국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회장은 "지구촌 전체가 일일생활권에 있고 인터넷 발달로 세계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국경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참에 이중국적도 긍정적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한민족이라는 큰 틀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으며 정체성을 찾고 싶습니다. 내국민들도 재외국민들을 다르게만 보지 말고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대했으면 합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으로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이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재외동포가 균형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이경로 회장)

호주에선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출신국가의 선거에 참여하는 이민자가 많다.
(호주 시드니 윤필립 씨 제공)

"해외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지원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이중국적을 인정해 시민권자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오스트리아 빈에 사는 심리학 박사이자 임상심리전문가인 임수영(33) 씨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서 13년째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행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대부분 투표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투표 포기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동아DB

발길이 묶인 개성공단행 대형 화물차량들이 남북 출입사무소 앞에서 통행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상생과 공영 제안 北, 언제까지 외면할텐가"

북한이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우리 측 직원들을 추방하고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키며 유연하게 대처해왔지만 북한이 대남 비난과 위협을 지속한다면 남북관계는 조정국면을 벗어나기 어렵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의 전환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상생과 공영'으로 정하고, 남북이 모두 행복하게 잘사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2008년 대북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24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우리 측 직원 철수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일관되게 강경공세를 취해왔다. 같은 해 7월 11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으로 남북 간 갈등은 더더욱 심화됐다. 오히려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던 북한은 11월 12일 판문점 경유 남북직통전화마저 단절했다.

북한은 한술 더 떠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육로통행 제한, 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관광 및 남북화물열차 운행 중단 등의 조치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제한했다. 북한은 남측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남북철도 운행과 개성관광을 중단시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스스로 위반하는 우를 범했다.

올해 들어서도 북한은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한미 합동 군사연습 기간 중 북한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민간 항공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등 경직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3월 9일 군 통신선과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차단한 북한은 이후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육로 차단과 통행 재개를 반복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조시켜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난과 강경조치에 대해 의연

하게 대응하면서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로 푼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

정부는 우선 '북핵 폐기와 상호 존중'이란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4월 17일 대통령이 직접 남북 간 상설대화기구 설치를 제의한 데 이어 4월 29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과거 대북정책의 공과를 인정하고 7월 11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전면적인 대화와 협력'을 제의했다. 8·15 경축사에서는 남북한이 함께 잘사는 '8000만 통일 한국의 꿈'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들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모든 현안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과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대결이 아닌 대화로 상생과 공영의 길을 찾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인도적 해결 노력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정부는 인도적 조치로서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제의했고, 민간단체(약 165억원)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약 1604억 달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을 지원했다.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를 비롯해 개성공단 사업도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해 남북왕래 인원은 18만6000명으로 전년도보다 17.3% 증가했다. 남북교역액은 18억2000만 달러로 1.2% 늘어났다. 개성공단 내 생산활동도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기업 수는 93개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북한 근로자 수도 3만9000명으로 72% 늘었다.

이처럼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지만 남북관계는 아직도 조정 중이다. 오는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예정돼 있어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4월 관광 재개를 목표로 피나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성공단 내 우리 투자기업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기확산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국론 분열과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체제강화를 위한 선전, 선동에 활용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과거 벼랑끝 전술이 성공했던 기억에만 매달린다면, 이는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결코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지난 남북관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느 한쪽의 강경조치와 위협으로는 결코 문제를 풀 수 없음이 자명하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대화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자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고 8000만 한민족이 모두 행복한 평화통일의 미래를 여는 상생과 공영의 첫걸음은 북한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거두고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과 북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과제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G

글 ·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북한 측 요구와 관련사건 일지

일자	내용
2008년 3월 24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내 남측 직원 철수 요구
3월 29일	남북 당국자 간 대화 중단과 접촉 거부 선언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 비난하며 '비핵·개방 3000 구상' 폐기 요구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8월 3일	금강산 내 남측 인원 추방, 군사분계선(MDL) 통제 및 제한
8월 9일	금강산 내 한국관광공사, 이산가족면회소 근무자 추방
11월 12일	판문점 경유 남북 직통전화 단절
12월 1일	MDL 육로통행 제한, 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관광·남북화물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단 상주인력 절반 감축
2009년 1월 17일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전면대결 태세 진입 선언
1월 30일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합의 무효화와 서해 북방한계선 폐기 발표
3월 5일	한미합동연습기간 중 북한영공 통과 민간항공기 안전 위협
3월 9일	군 통신선과 개성공단 육로 차단
3월 11일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 4월 4~8일 사이 로켓발사 통보
3월 13~15일, 20일	개성공단 차단

동아DB

관광이 중단되기 전 금강산을 찾았던 관광객들의 모습.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말하는 추경 편성 의미

"추경으로 일자리 55만개 창출 기대"

정부가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3월 24일 한국정책방송 KTV '정보와이드 930'에 출연한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미래성장동력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대규모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걸 차관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심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국민들에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을 위기극복의 모멘텀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최대 규모 추경이 편성됐는데요. '슈퍼 추경'이라는 논란도 많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촉발된 최악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도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외환위기 때의 재정지출 수준과 최근 주요 선진국의 대응수준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1998년 2차 추경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비슷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은데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재정수지는 상대적으로 건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며, 내용면에서도 건전합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시성 위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세출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해 위기 이후 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28조9000억원이나 되는 추경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5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합니다.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 부문에 3조5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효과가 큰 중소·수출기업,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원을 쓰고, 신성장동력과 교육선진화 등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미래대비 투자에도 2조5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추경의 최대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일자리 대책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추경의 일자리 부문 사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고 교육훈련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에서 55만 개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지원을 통해 22만 개 일자리의 고용 유지와 실업 예방을 할 것입니다. 또 대졸 미취업자와 실직자 등 총 33만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은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을 위기극복의 모멘텀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3700억원의 투자를 통해 18만1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6만8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청년인턴제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내 교육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담과 훈련, 취업알선을 연계해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들을 설명해주시죠.

이번 추경의 주요목적 중 하나는 실업, 휴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위기를 겪게 된 가구 등 국가의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120만 가구가 새로이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110만 가구는 한시적으로 생계구호, 희망근로프로젝트, 재산담보부 융자 등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 자금난도 무척 심각한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관에 총 1조8000억원을 지원해 2만7000개 중소·수출기업에 12조9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추경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 5대 중점 분야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1.5%p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엔 2%p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집행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위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대(對)국회 노력을 강화해 이번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통과 이전이라도 추경예산의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회 통과 즉시 조속한 집행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선진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G

정리 · 구자홍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에 거는 기대

"EU 관세율 높아 수출증대 효과 미국보다 크다"

20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3월 23~24일 8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물론 몇 가지 쟁점사항이 남아 있어 4월 2일 열리는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8차 협상을 끝으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한국과 EU 간 FTA 관련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5년 초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EU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대상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이렇게 빨리 EU와의 FTA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곧 한·EU FTA가 현실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당시 필자가 처음으로 한·EU FTA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EU야말로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는 점이었다.

우리와 경제관계가 매우 긴밀한 나라는 교역액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일본, 미국, EU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EU는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자 교역대상국이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들 나라 중 EU가 우리와 최적인 FTA 대상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선 EU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시장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아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증대 효과가 미국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즉 미국의 제조업 평균관세율은 3.7%이지만 EU의 평균 관세율은 4.2%며,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미국 관세율은 2.5%인 반면, EU는 무려 10%에 가깝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피해 규모도 美·中과의 FTA보다 작아

두번째로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바로 농업부문 개방인데, EU는 역시 이 부분에서도 다른 주요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EU

동아DB

3월 24일 전북 군산시 군산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유럽 수출용 자동차들. EU와 FTA가 타결되면 유럽 지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 주요 회원국들은 자국 농업부문의 보호를 위해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 때 상대국에 전면적인 농업부문 개방을 요구할 처지가 못 된다. 물론 우리가 EU와 FTA를 체결하면 EU로부터 돼지고기, 낙농 · 가공식품 부문의 수입이 확대되어 우리 농업부문에 일부 피해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EU와의 FTA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규모는 미국, 중국과의 FTA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한 · EU FTA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중요

세번째로,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과 EU의 산업구조를 보면 EU가 일본, 미국보다는 우리에게 비교적 더 보완적이어서 FTA를 통한 교역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매우 유사하고 많은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한 일본과 달리 EU와는 상대적으로 보완성이 높다. 따라서 한 · EU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정보기술(IT) 제품,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부문의 대(對)EU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EU로부터는 화학, 기계, 정밀기기 부문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4년 이후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EU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회원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이 치열하고 정체돼 있는 서유럽의 기존 회원국 시장(선진국 시장)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신규회원국에서까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유럽에 있는 EU 회원가입 대상국들이거나 아니면 과거 식민지 국가들 및 저개발국가들로서 이런 나라를 위주로 한 정치적 목적의 특혜협정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EU시장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지향적 국가와의 FTA는 EU 입장에서는 처음이다. 따라서 한 · EU FTA는 분명 EU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EU는 2006년 11월 신통상전략인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을 표방하면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의 무역장벽 해소와 개방을 위해 한국, 아세안, 인도 등과 FTA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와의 FTA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EU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한국은 여덟 번째에 해당된다.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 등 EU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유럽국가들을 제외하면 EU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그러나 EU로서는 거대경제권인 미국, 중국, 일본과의 FTA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EU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면서 거대경제권이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중요한 시장인 한국을 주요 타깃으로 선정한 것이다.

동아DB

3월 23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8차 협상에서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오른쪽)가 EU 베르세로 수석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EU가 한국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한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협상이 끝나고 양국의 비준절차를 거치면 양국시장은 개방된다. EU시장이 개방되면 그동안 경제위기로 주춤했던 한국의 대EU 수출은 다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시장도 개방되어 일부 제조업과 아직은 경쟁력이 약한 서비스부문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치를 것이고 일부 산업은 피해를 볼 것이다.

한 · EU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제품,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부문의 대(對)EU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EU로부터는 화학, 기계, 정밀기기 부문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EU가 단일시장이지만 EU 내에는 개별국들이 존재하며 회원국별로 경제규모와 산업구조, 그리고 각종 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개방을 준비하는 정부와 기업도 개방에 취약한 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 피해계층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국내 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던 한미 FTA의 귀중한 경험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G

글 · 김균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대사 탤런트 조재현

"진료비 확인제로 환자 권리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언제나 열정을 잃지 않고 매순간 연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탤런트 조재현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언제나 더 나은 연기, 더 훌륭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기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는다면, '바른 심사, 바른 평가, 건강한 국민'을 모토로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질병·수술별 진료 정보와 내게 맞는 병원, 약국 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는 모두 그러한 노력들의 일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진료비 확인제도'입니다.

과다 청구된 환불금액 매년 급증… 지난해 89억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내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그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생각보다 비싸다 싶은 진료비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내시는 건 아닌가요? 그럴 땐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진료비 확인제도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이라고도 하는 진료비 확인제도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하는 신청제도입니다. 확인 결과 만약 병원의 잘못으로 더 낸 진료비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 측이 건강보험적용 대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청구했을 때나 선택진료비(특진비) 및 약품, 치료재료 등을 과다하게 청구했을 때 국민 여러분은 그 금액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료비 확인 민원과 환불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2003년 제도 실시 첫해에 확인 민원 2682건에 2억7천여 만원 규모였던 환불금액은 2005년 14억8천여 만원(7733건), 2007년 151억7100여 만원(1만8850건) 등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병원 측이 건강보험적용 대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청구했을 때나 특진비 및 약품, 치료재료 등을 과다하게 청구했을 때 국민 여러분은 그 금액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만4876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있었고, 그중 절반이 넘는 50.9%, 즉 1만2654건에서 과다부담이 확인돼 총 89억8천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 조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실제로 확인 민원을 내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연간 진료비 과다청구액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인데요, 이 때문에라도 진료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진료비 확인이 어렵지는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더 편리해진 진료비 확인제도를 만나보시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처리해오던 진료비 확인 업무를 지난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맡게 됐습니다(이전에 공단에서 처리한 진료비 확인요청 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리). 덕분에 진료비 확인 민원이 일원화함에 따라 기관 간 이첩되는 시간도 크게 단축되고, 환불결정 금액의 지급기간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편리하게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은 민원처리 결과 환불금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기관에 사전 지급방법을 확인하고, 요양기관이

진료비 확인제도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이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환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요양기관과 민원인 간의 마찰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겠죠?

진료비 확인 요청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신 뒤 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진료비 확인 요청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진료명세가 확인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파일 첨부하되, 진료비 영수증은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서 별도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해 실명으로 작성하신 후 진료비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으로, 병원 및 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소재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니 이제 진료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민원처리 결과 등을 휴대전화로 안내하는 '모바일 민원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믿으시고 더 나은 의료 혜택과 의료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조재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비보이팀 '갬블러' 리더 장경호

서태지를 좋아하던 소년 할리우드를 춤추게 하다

지하철역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던 소년은 비보이 세계 대회를 제패한 후 대학에서 비보잉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다. 최근엔 할리우드의 비보이 영화 '하이프 네이션'의 안무감독으로 한국의 비보이 문화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장경호. 그의 꿈은 국립 비보이단을 만드는 것이다.

몸을 꺾고, 비틀고, 거꾸로 서고, 돌고…. 비보이 장경호(26) 씨의 춤을 보면 '몸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인다.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을 뜻하는 비보이의 현란한 움직임은 현대무용, 체조, 발레, 쿵푸, 요가, 농구 등의 동작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장경호 씨는 비보잉(브레이크 댄스)을 한마디로 "자유"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는 춤이 비보잉입니다. 땅을 딛고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며 관객과 교류할 때 완전한 몰입과 희열에 빠져들죠."

비보잉은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일이다. 그는 춤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다. 영국 시인 예이츠의 시 '초등학교 아이들 틈에서'에 나오는 '춤추는 사람과 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리?'라는 구절은 그가 가슴으로 공감하는 표현이다.

매일 5시간 이상 연습… 세계대회 우승 휩쓸어

장 씨는 어릴 때부터 춤에 대한 꿈이 있었다. 누구보다 브레이크 댄스를 잘 추고 싶었고, 세계대회에 나가 우승하고 싶었다. 열 살 때 '서태지와 아이들'의 힙합 춤을 따라하다 비보잉에 빠져든 그는 공부보다 춤이 좋았다. 학교에서, 체육관에서, 부산의 지하철역에서 거리낌 없이 춤을 췄다. 비보이가 '불량청소년'이나 '춤추는 날라리' 정도로 인식되던 때였으니 그의 즉석 공연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이도 적지 않았을 터.

"제가 둔감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느낌이 가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춤추고 있을 때만큼은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기에 더 연습에 몰두했죠. 그렇게 쌓은 실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 불안감이 어느새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는 매일 5시간 이상 춤 연습을 했다. 한번은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춤을 춘 적도 있다. 춤을 추다 쇄골이 부러져 꿈을 포기할 뻔한 시련도 맛봤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그의 춤에 대한 열정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급기야 그는 2002년 비보이팀 '갬블러'를 결성한 후 2004년 '비보이 월드컵'으로 불리는 독일의 배틀오브더이어 우승을 시작으로 같은 해 프랑스 배틀디멧시 우승, 2005년 일본 오키나와배틀페스티벌 우승, 2006년 미국 비보이호다운 우승, 2007년 미국 프리스타일세션 준우승 등 세계대회를 휩쓸었다.

"우리의 비보잉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가슴 뿌듯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생각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비보잉을 통해 우리나라를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장 씨가 이끄는 비보이팀 갬블러(멤버 8명)가 파라마운트사의 영화 '하이프 네이션(Hype Nation)'의 주인공으로 발탁돼 화제가 됐다. '하이프 네이션'은 가요 '미쳤어'로 뜬 가수 손담비와 '시스터 액트'의 스타 우피 골드버그, 미국의 유명 힙합그룹 B2K가 출연하는 비보이 영화다.

이 영화의 안무 감독도 맡은 장 씨는 최근 워싱턴, LA 등을 돌며 영화 프로모션 공연을 하는 한편, B2K와 함께 영화에 활용할 안무 작업도 하고 있다. 그는 갬블러의 영화 출연이 한국의 비보이가 새롭게 진화하는 계기이자 대중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계적인 비보이가 된 지금도 장 씨는 많은 꿈을 품고 산다. 그중 가장 간절한 꿈은 국립 비보이단을 만드는 것이다.

"비보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냈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도

동아DB

“ 지난해 장 씨가 이끄는 비보이팀 갬블러가 영화 ‘하이프 네이션’의 주인공으로 발탁돼 화제가 됐다. ‘하이프 네이션’은 가요 ‘미쳤어’로 뜬 가수 손담비와 배우 우피 골드버그, 미국의 유명 힙합그룹 B2K가 출연하는 비보이 영화다. ”

움을 전혀 받지 않고 비보이들의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죠. 이제 우리의 비보잉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립 비보이단이나 시립 비보이단이 만들어지면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립 비보이단 만드는 게 간절한 꿈

비보이들이 각종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 비보이는 공연뿐 아니라 방송, 광고 등을 통해 문화상품을 만들어냈다. 비보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미래를 불안해하는 비보이들이 많다. 유명 팀 소속이라도 수입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립이나 사립 비보이단이 만들어지면 대학에 비보이 관련 학과도 생기고, 비보이들의 진로도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장 씨는 지난해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부산예술대 실용무용과 겸임교수와 경희대 수원캠퍼스 강사로 학생들에게 비보이 문화와 실기를 가르친다. 강의를 정리해 책이나 교재를 만들어 일반인들이 비보잉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비보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춤이 좋아 춤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비보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과 좀 더 많은 교감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보이 공연이 국악, 뮤지컬, 굿, 가요 등 다른 장르와 교류하면서 하나씩 경계를 허물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하는 것을 목표로 비보잉과 태권도가 결합된 퍼포먼스를 기획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비보이 뮤직컬과는 질적으로 다른 쇼를 만들 생각입니다.”

비보잉은 강한 힘과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대 후반만 돼도 하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요즘 해외에는 40대 비보이들도 있다고 한다. 장 씨 역시 건강이 허락한다면 40대뿐 아니라 그 이상 오래 춤추고 싶다고 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끔은 희망이나 확신이 흔들리지만 불확실한 미래로 몸을 던져야 할 때도 있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삶의 방식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G

글 · 이혜련 객원기자

춤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장경호 씨는 비보이와 태권도가 결합된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있다.

수입 30% 이상 떼어 이웃 돕고 일요일마다 보육원생들 돌보기

20년 한결같은 봉사의 삶 '情'애리

가수 김장훈 장나라, 탤런트 김혜자 등은 인기도 인기려니와 봉사하는 모습으로 팬들을 감동시키는 연예인들이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우리 사회에 행복한 미소를 번지게 한다.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탤런트 정애리 씨다. 그는 20년 동안 낮은 자세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아무리 바빠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은 놓치지 않는 정애리 씨.

중견 탤런트 정애리 씨는 이제 '시청률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어도 될 성싶다. KBS 드라마 '너는 내 운명'에서는 주인공 새벽(윤아)의 양어머니 영숙 역으로,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선 배신한 남자를 향해 복수의 칼을 겨누는 뷰티숍 사장 민현주 역으로 출연해 연이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씨는 두 드라마가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연타석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대신 그만큼 그의 일과도 바빠졌다. 그야말로 촬영의 연속. 잠시 짬을 내기도 쉽잖은 스케줄이지만 그가 바쁜 틈틈이 꼭 하고야 마는 일이 있다. 서울 노량진의 한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을 돌보고, 결식어린이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을 위해 연탄과 도시락을 나눠주는 일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연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봉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렇게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 됐다"며 웃음을 짓는다.

2005년엔 탄자니아 방문해 에이즈 걸린 아이들 도와

하루라면 그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다. 이틀 정도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사흘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날이 한 달, 두 달…한 해 두 해 쌓여간다면 봉사와 희생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결정이다. 정 씨의 봉사는 어느덧 7000일을 넘겼고, 세월의 두께만큼 그 의미도 단단해졌다.

정 씨의 봉사활동은 2005년 5월 자전에세이집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랜덤하우스)의 출간과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 이 에세이집을 통해 정 씨는 '굿 뉴스'와 '배드 뉴스' 두 가지를 팬들에게 알렸다. 봉사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굿 뉴스라면 남편과의 별거는 배드 뉴스였다. 정 씨는 에세이집에서 '남편과 헤어져 사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는 말로 '17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글 말미에 당시 자신의 상황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그는 끝내 이혼의

아픔을 감내해야 했지만 이후 일상엔 변화가 없었다.

정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정 씨는 출연료의 30% 이상을 떼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고, 에세이집 인세 수입 1억여 원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5년 말에는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10여 일간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정 씨는 누구도 쉽게 걷기 힘든 길을 그렇게 20년 동안 걸어왔다. 아픈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우리나라 산간오지이든, 세계의 아스라한 변방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갔다. 매주 일요일이면 들르는 '아기의 집-성로원'에서 싹이 튼 그 따뜻한 마음은 노숙자와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로 이어졌고, 국경을 넘어 몽골과 인도의 배고픈 아이들에게까지 미쳤다. '봉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는 "나눠주니 더 넉넉해지고,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 더불어 행복해졌다"고 말한다.

월드비전, 연탄은행, 생명의 전화 홍보대사 활동

정 씨는 일요일이면 딸 지현이와 함께 성로원에 간다.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은 모녀에게 일상이 됐다.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한 일이니 딸과 함께 성장해온 셈이다. 그렇게 봉사는 유전되고 전염되는 듯하다. 초등학생 때는 한창 놀고 싶을 나이라 귀찮아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지현이는 자기를 떼놓고 갈까봐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교회 권사이기도 한 정 씨와 딸 지현이의 일요일은 그 자체로 찬양이요, 찬송이다.

정 씨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 씨 역시 정 씨의 봉사활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여기 한 명의 실존 천사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심장을 꺼내주었는지 모른다. 바로 정애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덕담을 아끼지 않는다.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이자 여행가인 한비야 씨도 침이 마를 만큼 정 씨를 칭찬한다. 한 씨는 "정애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똑똑하다, 차갑다, 예쁘다'일 거다. 나 역시 지진해일 현장을 같이 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한밤중에 지진해일 경보로 비상대피하는 등 동고동락한 후 밝혀진 그의 정체는 바보처럼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정 씨를 따라다니는 키워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월드비전, 연탄은행, 생명의 전화, 평화의 마을 등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했거나 하고 있고, 북한동포 돕기 '생명의 이음줄 운동' 후원,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연예인 자문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또한 2002년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 씨는 연기로도 일가를 이뤘다. 출연 드라마의 시청률 고공행진은 덤이다. 1978년 탤런트로 데뷔한 이래 그는 수십 편의 드라마와 연극, 영화에 출연해 백상예술대상 연기상, MBC · KBS 연기상, 서울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등을 수상하며 최고의 연기자로 평가받아왔다.

정애리 씨는 매주 일요일 '아기의 집-성로원'을 찾는다.

봉사는 연기생활에 활력을 더했다. 정 씨는 '너는 내 운명'과 '아내의 유혹'의 인기 비결을 묻자 "'너는 내 운명'이 처음부터 고정 팬들이 있었다면, '아내의 유혹'은 방송시간이 프라임 타임대라서 무난하게 시작한 사례다. 이러한 후광 덕에 입소문이 나면서 팬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 씨는 일요일이면 딸 지현이와 함께 성로원에 간다.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은 모녀에게 일상이 됐다.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한 일이니 딸과 함께 성장해온 셈이다. 그렇게 봉사는 유전되고 전염되는 듯하다.

이어 "무엇보다 김순옥 작가가 쓰는 '아내의 유혹'의 스토리 전개가 빠른 데다 깔끔한 연출과 연기자들의 열연이 보태져 인기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가슴에 사무친 게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그들의 거친 손을 잡을 때마다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꺽꺽 소리 내어 함께 울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그들도 꾹꾹 누르며 살고 있는데 감히 제가 함부로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칠 것처럼, 죽을 것처럼 깊은 슬픔을 제 속에 꾹꾹 채워 담았지요."

정 씨의 가슴 저미는 고백이다. 자신의 일에 성심을 다하고, 남들을 위해선 최선을 다하는 여자. 정 씨의 봉사는 '나비효과'처럼 세상을 바꾸고 있다. G

글 · 강석봉 스포츠칸 기자 / 사진 · 랜덤하우스코리아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물값을 5년 연속 동결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Water⁺로 조직구조 선진화 이룬 수자원공사

나눔경영으로 경제회생 힘 보탠다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경영 효율화와 나눔경영 실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공기업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노사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경영을 안정시키고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3Water+(트리플 워터)라는 새로운 경영방향을 수립해 선포했다.

'트리플 워터'는 국가 수자원 관리를 공공성, 성장성, 효율성 등 3대 지향가치의 균형에 두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확대' '지속성장 실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트리플 워터라는 신 경영방향을 중심으로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영 효율화에 힘쓰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조직구조 선진화다.

지금까지 조직구조 단순화, 부서 간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총 정원의 11.2%에 해당하는 475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총 61개 부서를 49개 부서로 통폐합했다. 조직구조도 팀당 인원을 13명 수준으로 대(大)팀화하는 등 슬림화했다. 줄어든 부서는 전체 조직의 약 20%에 해당한다. 또한 22개 상위 관리직을 줄이는 대신 현장 실무인력 비율을 높이고 단순 직무 인원 132명을 감축해 인력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특히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원감축 과정에서 106명이 조기 퇴직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노사는 이들 조기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연봉의 3~10%(임원 750만원/인, 직원 140만원/인)를 갹출, 약 56억원을 마련해 조기 퇴직자의 전직을 지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Water+(트리플 워터)라는 새로운 경영방향을 수립해 선포했다.

비록 총인원의 11.2%나 줄이는 아픔을 겪었지만, '나눔경영' 실천을 통해 국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예년 수준인 약 90명의 신입사원과 총정원의 5%에 해당하는 약 200명의 청년인턴을 새로 채용했다. 특히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직구조 선진화의 다른 사례로는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보직을 부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꼽을 수 있다. 연공서열에 따른 직급승진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1, 2급 관리자를 통합 운영해 직급 간 복수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위와 성과에 따른 보수 결정에 있어서도 직위급에 차등을 두는 한편, 성과급도 최대 200%까지 차등을 둠으로써 직위 경쟁을 통한 역동적인 인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발탁 인사를 통해 직급 간, 직급 내 건전한 경쟁심과 위기의식을 유도해 직무 몰입은 물론, 성과와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위직급 직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저성과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저성과자 관리는 근무평가, 상급자 평가관찰, 전보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본인과 동료, 가족 면담 등을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광역상수도 물값 5년간 동결해 서민 부담 줄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직무능력 향상과 업무수행태도 개선을 위해 현업부서 과제 부여, 사회봉사활동, 전문가 상담 등으로 이뤄지며 평가를 통해 재교육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이길재 관리본부장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는 관행적 온정주의를 극복하는 한편, 조직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절감과 기술혁신 등을 통한 다각적이면서도 강력한 원가절감 자구노력으로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물값을 5년 연속 동결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승수 부사장은 "세계적 경기침체와 경제불황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인운하사업, 경남·부산권 물문제 해소사업,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등 지속성장과 녹색성장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DM사업이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같은 비감축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거나 개도국이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된 감축실적을 구매,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에 공기업 최초로 CDM사업에 착수해 현재까지 시화조력, 소수력 1·2, 시화풍력 등 총 4건의 CDM사업을 유엔에 등록해 연간 33만t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7월에는 소수력 CDM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8430t을 유엔으로부터 발급받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1억8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는 시화호 수질 개선과 해양의 무공해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정 부사장은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더 많은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구자홍 기자

Interview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예산 절감해 주부사원 600명 채용 할 것"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고 있다.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35억원을 재원으로 4월 600여 명의 주부사원을 채용한다. 주로 전국 60개 댐과 수도 사업장 인근지역의 저소득층이 그 대상자다.

김건호 사장은 "경영 효율화와 나눔경영 실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며 "공기업으로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이후 주부사원이 활동에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7000명 이상이 청소와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과 간병도우미, 아동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장은 "수자원공사의 경영 효율화 성과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소수력과 풍력, 태양광 등 2520kW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총 137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시화호 수질 개선과 해양의 무공해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25만4000kW)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수자원공사가 운영 관리 중인 전국의 수자원, 수도시설을 활용해 기존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수온차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호 사장은 건설부 차관보,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과 수송정책실장을 역임한 뒤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한국공항공단 이사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대우건설기술연구원 비상근 고문도 역임했다.

판 커지는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시장

2018년 세계 톱5로 '藥' 올려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은 21세기 성장을 주도할 대표적 산업으로 손꼽힌다. 2007년 주요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자동차 6.4%, 정보기술 9.5%, 바이오 14.8%였다. 1997년엔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가 반도체산업의 21%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34% 수준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바이오산업이 생명공학 기술을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 및 제조 등에 응용해 인간의 생명 연장과 건강 향상 등에 기여하는 바이오 신약 분야다. 의약품은 아스피린처럼 화학 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합성 신약과 생물체의 생명활동, 즉 생합성을 통해 만드는 바이오 신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초의 바이오 신약으로는 인슐린을 들 수 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한 구성성분이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을 몸에 투여해 병을 치료한다. 1982년 미국의 제넨테크사가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해 대장균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2007년 바이오시장 규모 680억 달러 '4년 새 두배로'

이후 바이오 신약 분야는 꾸준히 발전해 약 270개의 바이오 신약이 출시됐다. 현재 임상단계에 있는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여 개에 달한다. 시장 규모도 확대돼 2003년 380억 달러였던 것이 2007년에는 68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전체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 8%에서 2010년 20%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해 현재 세계 14위권의 기술경쟁력을 확보(선진국 대비 60~70% 수준)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 15종의 신약 개발에 성공했고, 인플루엔자 백신 등을 동남아권에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 신약과 의료기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조영철 기자

정부는 2018년까지 생명공학·의료기기산업 세계 5대 강국 실현의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은 서울대 생명공학부 실험실.

정부는 최첨단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DB

선정하고,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산업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수출 170억 달러, 일자리 약 20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약 개발·생산, 임상시험센터 지원, 인력 양성 △디지털병원 테스트베드 구축 △인허가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는 2012년까지 신약 개발에 300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가운데 540억원을 바이오 신약 개발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의약품제품화기술지원센터를 설립, 바이오 등 신약 개발 연구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바이오 신약 연구사들의 최대 고민이었던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2012년까지 바이오신약 개발에 540억원 지원

또한 정부는 획기적인 핵심 글로벌 의료기기 제품 개발에도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은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일본 미쓰비시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3111억 달러, 2013년 4402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첨단영상 생체현상 진단기기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첨단 의료기기 아이디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약 48억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금을 책정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국내외에 바이오 신약 등 35건 특허 등록"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선영 교수가 설립한 (주)바이로메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신약 개발 벤처기업이다. 1996년 국내 최초의 학내 벤처기업으로 설립돼 2005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심혈관치료제, 항암제, 유전질환치료제 등 4종의 바이오 신약과 2종의 천연물 신약을 개발해 한국, 미국, 중국에서 총 7개의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외에 35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 31건이 특허 출원 중에 있는 등 세계적으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항알레르기 기능성 제품(건강보조식품)은 올해 안에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에서 동시 발매될 예정이다.

바이오 신약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 몸에 있는 구성성분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치료제라 할 수 있다.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니까 합성 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성장호르몬 등 단백질 분야가 주종을 이뤘는데, 앞으로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의약품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성은 어떻게 보나.

세계적으로 합성 신약 개발 수는 줄어드는 반면 바이오 신약은 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바이오 신약이 해결해줄 수 있어 시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성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분야에 도전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조언한다면.

바이오기술(BT)은 정보기술(IT)과 함께 21세기 경제와 문화를 이끌어갈 양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상업적으로 유용할 뿐 아니라 인류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자신이 살아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분야에 몸을 던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도전하라고 권하고 싶다.

개발 중인 제품이 심혈관치료제, 항암제, 유전질환치료제 등 다양하다.

이것이 바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자기 전공분야만 알지 인접분야는 잘 모른다. 따라서 다른 분야를 연구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기초과학은 뿌리를 연구하기 때문에 가지를 다양하게 뻗어가며 연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은 치료하는 전공은 각기 다르지만 원리는 같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앞으로의 목표는.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해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현재 바이로메드에 60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더 늘릴 생각이다. 앞으로 3년은 더 돈을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5년 후 시가총액이 1조원은 될 수 있도록 키울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뇌에 대한 연구를 할 생각이다.

친환경 옷 입은 IT건물 '누리꿈스퀘어'

태양광으로 정원 가꾸고 지열로 냉난방

친환경 아파트에 이어 친환경 오피스도 주목받고 있다. 집보다 오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 대표적 건물로 주목받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누리꿈스퀘어'를 찾았다.

'아침 햇살로 가로등을 밝히고, 거실엔 싱그러운 정원이 가득한 곳.' TV에서 흘러나오는 아파트 광고 문구가 아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누리꿈스퀘어'는 이 같은 행복한 상상이 현실로 나타난 '그린오피스'다.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누리꿈스퀘어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2007년 완공했다. 미국의 유수 정보기술(IT) 회사들이 몰려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글로벌 IT 비즈니스 허브를 목적으로 조성된 이곳에는 IT 관련 중소기업을 비롯해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 금융 관련 5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누리꿈스퀘어가 주목받는 것은 'IT의 메카'라는 점 외에도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면서 반복적이고 영구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그린오피스'라는 점이다.

빗물 받아 화장실 변기와 조경용으로 사용

"친환경 그린오피스는 단순히 에너지 절약의 개념이 아닙니다. 화석원료가 아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리꿈스퀘어 운영단 건축담당 양기웅 수석은 에너지 절약보다 친환경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런 의미에서 누리꿈스퀘어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꿈스퀘어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 중 가장 큰 특징은 땅속 지열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이 건물의 냉난방은 지하 200m까지 파내려간 지열배관을 통해 땅속에서 뽑아올리는 열기를 이용한다.

누리꿈스퀘어 운영단 설비담당 안지용 수석은 "지하 200m에 이르는 지하천공(파이프) 112개가 3000㎡ 면적의 건물 냉난방을 책임진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지상과 달리 땅속은 항상 15℃ 정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하 200m 깊이까지 파내려간 파이프를 통해 겨울엔 온기를 끌어올리고, 여름엔 열을 배출합니다.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평형'을 이루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죠. 지열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제로이며 태양이 멈춰버려 지구가 식지 않는 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 뽑아올리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므로 누리꿈스퀘어의 냉난방 시설은 사무실 바닥에 설치돼 있다. 일반 건물들의 냉난방이 천장을 비롯한 머리 위쪽에 설치된 것과 정반대다. 냉기와 온기가 바닥에서 나옴으로써 여름엔 천장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먼저 빼앗기는 냉기를 잡을 수 있고, 겨울엔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더운 공기가 올라가는 대류현상을 활발히 일으켜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누리꿈스퀘어 실내 정원은 옥상의 태양광 집광기(왼쪽)가 천연태양광선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여 식물의 광합성에 더 유리하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면서 반복적이고 영구적인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누리꿈스퀘어 건물.

태양이 뜨고 질 때까지, 태양의 위치에 따라 건물의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덥고 추운지를 일일이 계산해 이에 맞게 냉난방을 공급하는 것도 누리꿈스퀘어의 특징이다. 이를 위해 한 층에 많게는 100개가 넘는 온도센서가 부착돼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냉난방을 맞춤공급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했다. 빗물과 생활하수의 재활용도 누리꿈스퀘어가 자랑하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서, 강원도는 요즘 오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 누리꿈스퀘어는 가까운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할 물 절약이라는 숙제에도 그 대안을 제시한다.

각층 휴게실마다 실내정원 꾸며 녹색공간 조성

안지용 수석은 "화장실 변기에 사용되는 물, 조경용수 등은 빗물과 재활용한 물(중수)을 이용한다"며 "이를 위해 빗물 400t을 받을 수 있는 우수조와 500t에 이르는 중수조가 있으며, 이 물들을 모으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열 역시 누리꿈스퀘어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누리꿈스퀘어의 옥상엔 다양한 모양을 한 태양열 집열판이 놓여 있다. '태양광 집광기'라고 불리는 이 설비는 자연 상태의 태양광선을 광섬유를 이용해 반사시켜 건물 실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태양빛이 미치지 못하는 건물 속까지 '천연 태양광선'을 끌어들이는 셈이다.

누리꿈스퀘어는 각층 휴게실에 실내 정원을 꾸며 입주한 직원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른 대형 건물들의 실내정원과 다른 것은 이곳 정원이 태양광 집광기를 거쳐 천연 태양광선이 실내까지 들어와 식물들의 광합성에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옥상의 또 다른 설비인 '태양열 집열기'는 낮 동안 모은 태양열을 화장실 온수를 급탕하는 데 사용한다. 그리 큰 시설이 아닌데도 이 설비를 통해 누리꿈스퀘어 연구개발센터 7층부터 16층, 판매시설까지 급탕을 공급한다. 석유나 가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열효율을 자랑한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통해 자체 생산한 전기는 24시간 내내 조명을 밝혀야 하는 지하주차장에 사용한다.

건물 앞 야외 정원의 가로수 역시 집열판을 달고 있는 태양광 가로수다. 낮 동안 모아놓은 태양에너지로 불을 밝힌다. 이외에도 건물의 모든 마감재를 페인트나 본드 등 독성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해 '새집 증후군'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렇듯 그린오피스는 인체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 건설업자들은 '친환경 건물' 짓기를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친환경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아직도 설비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높은 이유는 환경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은 오랜 시간 꾸준한 투자 끝에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이다. 현 정부 들어 녹색뉴딜정책 등 '친환경'과 '사업'을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반가운 일이다.

건물 앞 야외 정원의 가로수 역시 집열판을 달고 있는 태양광 가로수다. 낮 동안 모아놓은 태양에너지로 불을 밝힌다. 이외에도 건물의 모든 마감재를 페인트나 본드 등 독성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해 '새집 증후군'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산화탄소 종량제로 표현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곧 시행되면 친환경 건축 기술은 더욱 시급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를 위해 친환경 건물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

100명의 상담 도우미 "110% 만족 드려요"

민원을 제기하기엔 턱없이 높았던 정부의 문턱이 낮아졌다. 모르는 전화번호는 알려주고 담당자 연결은 물론, 무료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민원안내 도우미 110콜센터 덕분이다.

#1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의 오세경 상담원은 수많은 고객 중에서도 경남 김해의 한 할아버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순다섯의 할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된 후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 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말소된 주민등록을 해지하고,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했죠. 그래야 수급권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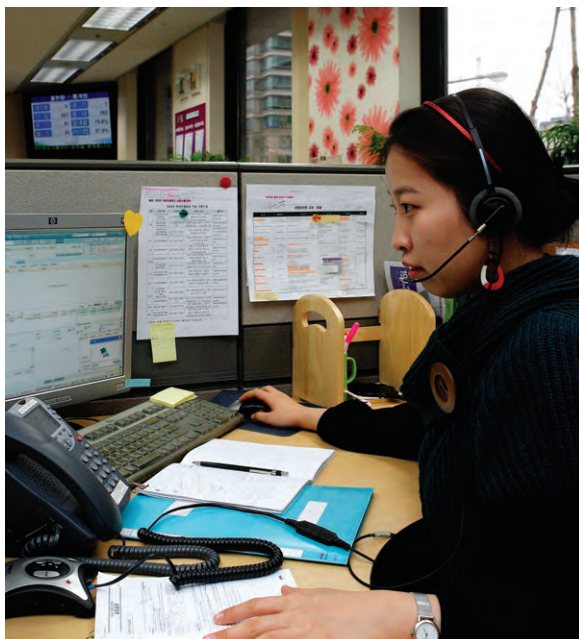
문제는 말소된 주민등록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8만원. 할아버지는 이틀간 산불 순찰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겨우 과태료를 물었고, 오 씨는 김해시의 해당 동사무소 직원과 직접 통화하며 진행 결과를 살폈다.

"동사무소 직원이 할아버지의 다리가 많이 불편한 것 같다며, 비록 진단서는 없지만 생계비는 물론 의료비 지원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오 씨는 할아버지가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2 지난 2월 한 통의 전화가 110콜센터로 걸려왔다. 유애경 상담원의 귀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고객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S자동차 지점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했어요. 매월 19일에 급여 8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고요. 그러다 퇴사를 했는데, 임금 일부인 40여 만원을 주지 않아요. 급여 80만원 중 40만원은 본사에서, 40만원은 대리점에서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고객의 막막한 처지가 안타깝게 느껴졌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을 생각해 유 씨는 빠르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특이한 형태의 근로계약에 대해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급여지급 의무가 대리점 매니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고객의 요청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를 접수시키는 일도 나서서 해줬다. 그 결과 며칠도 안 돼 고객은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민간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보람과 자긍심을 많이 느낀다는 상담원 정현정 씨.

2007년 5월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110'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다. 이곳에선 100여 명의 상담원이 전화로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궁금증과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상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해주고,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연결을 해준다.

그뿐 아니라 억울한 일이 있을 땐 무료로 법률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화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가 추후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로 회신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그동안 국민은 행정 관련 민원이 있어도 높은 문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기관이 어딘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기본. 해당 기관을 알아내 전화통화가 돼도 "우리 기관 소관이 아니다"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화를 돌려버리기 일쑤였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오래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전화가 도는 과정에서 민원인은 문의 내용을 여러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상담원들은 각종 불법추심 피해 구제에서부터 임금체불, 세금, 가족 문제까지 해결해준다.

번 되풀이해야만 했다.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정송훈 사무관은 "세금, 법률, 노동 등 각종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 기관은 40여 개가 넘는다. 국민이 개별 전화번호를 알아내 일일이 연락해야만 하는 고충을 줄이기 위해 110이 만들어졌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은 대부분 민간기업에서 전문 상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복잡한 행정업무를 통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틈틈이 행정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하루 6000여 통 상담… 개소 이후 270만명 고충 해결

개소 때부터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임민정 씨는 "이동통신사 상담원으로 7년간 일하다 이곳으로 옮겼다"며 "민간에서 일할 때보다 일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임 씨는 "콜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대다수가 나이가 많거나 인터넷을 잘 못한다. 처음엔 격앙된 목소리로 화부터 내던 어르신들에게 상담이 끝난 뒤 '이런 전화가 있어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땐 정말 뿌듯하다"고 했다.

콜센터에는 하루 평균 6000여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문의 내용은 각종 불법추심 피해 구제에서부터 임금체불, 세금, 가족 문제까지 다양하다. 지난해엔 152만3754명, 개소 이래 지금까지 총 270만명이 110콜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요즘은 경기침체로 생활고 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세금, 법률, 노동 등 각종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 기관은 40여 개가 넘는다. 국민이 개별 전화번호를 알아내 일일이 연락해야만 하는 고충을 줄이기 위해 '110'이 만들어졌다.

정 사무관은 "상담활동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지원 대책'을 알리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 결과 많은 서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도움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고 밝혔다.

크든 작든 행정처리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민원안내 도우미 110.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 G

글 · 정지연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 전화 : 전국 국번 없이 110번
■ 상담 :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고용시장에 변화 줄 연령차별금지법

나이 많다고 차별? 이젠 그럴 일 없어요!

사원 모집

분야 경영 및 회계
자격 대졸 또는 동등학력 이상
연령 만 30세 이하

앞으로는 이 같은 사원모집 공고를 볼 수 없게 됐다. 3월 22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만일 연령 제한을 둘 경우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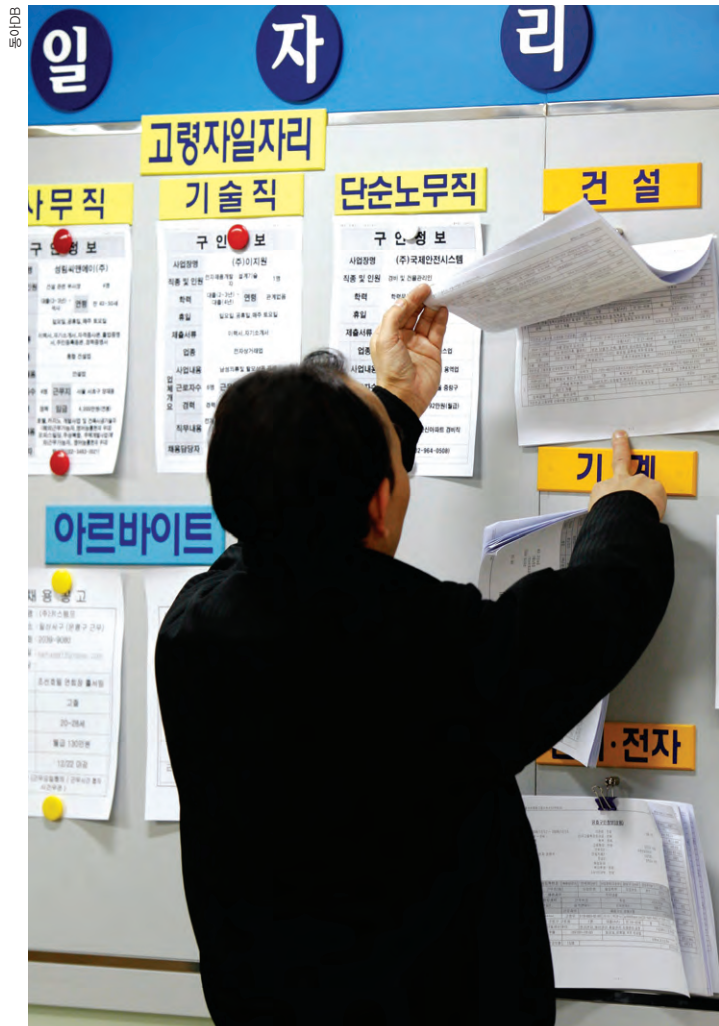
연령차별 금지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모집, 채용 부문은 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 중이고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의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와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의 차등지급, 정년, 적극적 고용지원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고령자 등 고용촉진 계기 될 것으로 기대

연령차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연령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집, 채용시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내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주의 보복적 불이익 조치를 우려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아DB

3월 22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채용 과정에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됐다.

정부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연령 때문에 차별받는 관행을 없앰으로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기업에게는 나이가 아닌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기업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활력 있는 고령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법 개정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G

정리 · 구자홍 기자

제64회 식목일

녹색성장의 원동력은 **나무심기**

지역별 나무심기 좋은시기

남부지방(제주, 전남, 경남) 3월1일~4월10일 / 중부지방(충·남북, 전북, 경북) 3월11일~4월20일 / 북부지방(서울, 경기, 강원) 3월21일~4월30일

새봄맞이 '국토대청소의 날' 행사

환경부는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3월 25일 '2009년 새봄맞이 대청소 행사'를 경기 안산시 대부도 시화호 주변에서 열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이화수 국회의원, 박주원 안산시장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민·관·군에서 약 11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과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 실천 활성화'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목행사와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도 함께 실시됐다.

환경부는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3월 25일 '2009년 새봄맞이 대청소 행사'를 경기 안산시 대부도 시화호 주변에서 열었다.

직원 73% 장기·각막 기증 서약

얼마 전 선종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 소식이 알려진 이후 범사회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장기기증운동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법무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랑의 장기, 각막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와 (재)사랑의장기기증본부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법무부 본부 직원 732명 중 535명이 기증 서약에 동참해 73%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랑의 장기, 각막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녹색성장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식목일(4월 5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가 한창인 가운데 **산림청**이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녹색성장의 원동력은 나무 심기'라는 주제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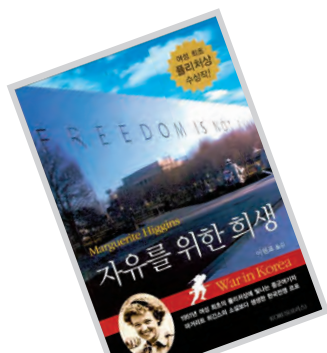
지역별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인 이번 캠페인은 전국 157곳에서 유실수와 조경수 등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는 '나무 나누어 주기'와 도시 근교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내 나무 심기' 등의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아울러 산림조합은 전국 122곳에서 경제수와 조경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나무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무궁화 심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2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무궁화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는 '희망의 꽃 무궁화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궁화 사진전과 무궁화 전시회 등 부대행사도 열렸다.

이에 앞서 3월 27일에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정광수 산림청장과 (사)생명의숲 조연환, 이돈구 공동대표 등이 직접 국민들에게 나무를 나눠주며 '녹색성장의 원동력은 나무 심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희망을 심고, 꿈을 나눕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G

정리 · 구자홍 기자

정경택 기자

산림청은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녹색성장의 원동력은 나무 심기'라는 주제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美 여기자의 6·25전쟁 비망록

〈자유를 위한 희생〉
마거리트 히긴스 지음 · 이현표 옮김
코러스 · 1만2000원

한반도는 휴전의 땅이다.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6·25전쟁이 끝나고 50여 년이 흐른 지금 긴장감은 상당히 완화됐지만 표면적인 평온함 밑에서 남북은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크고 작은 긴장의 저류는 한반도를 끊임없이 관통하고 있다.

〈자유를 위한 희생〉은 미국 〈뉴욕헤럴드트리뷴〉지 여기자였던 마거리트 히긴스(1920~1966)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6·25전쟁 르포다. 전쟁 발발 뒤 서울로 날아와 6개월간 직접 전선을 누빈 미국 종군기자가 전쟁이 일어난 당시의 관점에서 지금은 희미해져버린 6·25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지은이는 "6·25전쟁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건과 일화를 통해 적의 공격, 우리 반격의 실상, 우리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배운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한다.

그가 지목한 '우리(미국)'의 약점이란 적(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을 과소평가한 데서 나온 준비 부족과 우유부단함이다. 전쟁 발발 소식이 전해진 이틀 뒤 지은이가 동료 언론인들과 함께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미국은 참전 결정을 망설이고 있었다. 반면, 공산세계는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지은이는 진단한다. 그리고 지은이는 이런 공산세계의 도전에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미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핵무기만으로 안보가 지켜지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보병 육성 등 실질적인 전투능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51년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 받은 작품

전쟁 중인 한반도가 여성에게 위험하다는 〈타임〉지 동료 기자의 만류에도 지은이는 끝내 비행기에 올라 남성들과 똑같이 6·25전쟁의 현장을 누볐다. 열혈 기자정신의 산물인 이 책으로 그는 1951년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상을 받은 뒤에는 책을 들고 "한국을 도와야 한다"며 미국 전역을 다니기도 했다.

냉전의 시발점이던 1950년대 초에 나온 책인 만큼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고 봐야 할 대목들도 많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지은이의 주장은 아직도 이념 대립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할 것 같다.

동아DB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활약한 마거리트 히긴스는 전쟁 동안 겪은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9·28 서울 수복 때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군.

"한반도에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은 전쟁을 치름으로써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또한 승리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패배할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G

글 · 손정숙 객원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들

생명 위협받고 밤샘 수사 예사 마약과의 전쟁 선봉에 서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검거되는 1만여 명의 마약사범 중에는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개인의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좀먹는 '악의 뿌리'인 마약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를 찾았다.

마약의 진원지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면 장기간 잠복근무도 기꺼이 감내하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관들.

'음침한 부둣가에 둥둥 떠 있는 어선 위에서 마약조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이때 검찰이 들이닥쳐 이들을 에워싼 후 금방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듯한 기세로 일제히 총부리를 겨눈다. 잠시 배 위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지만 결국 조직원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깡그리 붙잡힌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MBC TV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 등장했던 마약 밀매조직의 검거 장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비현실적인 설정이라는 게 검찰수사관의 전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서 15년 동안 마약수사를 전담해온 도춘성 수사관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종종 극적인 재미를 더하기 위해 대규모 마약조직을 총기 난사 끝에 검거하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곤 하는데 마약 밀매가 극심한 브라질이나 이란의 국경지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씩 잠복근무할 때도 많아요"

"마약 수사에는 주로 전기충격 총을 휴대합니다. 특별한 작전을 수행할 때를 제외하곤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동원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마약사범이나 조직을 쫓다 보면 상대방이 흉기로 위협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나흘에서 일주일씩 잠복근무를 할 때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검거되는 마약사범은 대략 1만명 정도. 비록 잡히진 않았지만 사회의 음지 어딘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입하는 잠재 인구는 여기에 10을 곱한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놀라운 점은 검거되는 마약사범 중 상당수가 평범한 주부나 직장인이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이 처음엔 호기심으로 마약을 투여합니다. 마약 유통업자들은 이를 빌미로 마약을 계속 구입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투여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빠져 직장생활은 물론 가정까지 엉망이 되고 말아요."

사실 국내에서 마약사범을 잡아들이는 일은 주로 경찰이 맡는다. 검찰수사관들은 마약을 공급하는 국제 마약범죄조직과 밀조·밀수조직 등 진원지를 뿌리 뽑는 것이 주 업무다. 하지만 마약조직은 은밀히 활동하는 데다 갈수록 공급 경로가 다양해져 수사와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요즘은 공항과 항만에 마약수사관을 집중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마약류를 소지하고 밀수입하는 고전적 수법은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햇반'이나 화물에 숨기거나 가구류의 나무속에 감추는 경우도 있고, 최근엔 인터넷을 이용해 국제특급우편(EMS)으로 필로폰이나 대마 등을 밀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중국, 미국, 캐나다 등지의 재외교포와 공모해 서류봉투나 땅콩버터 같은 음식물에 필로폰이나 대마를 소규모로 은닉 포장해서 보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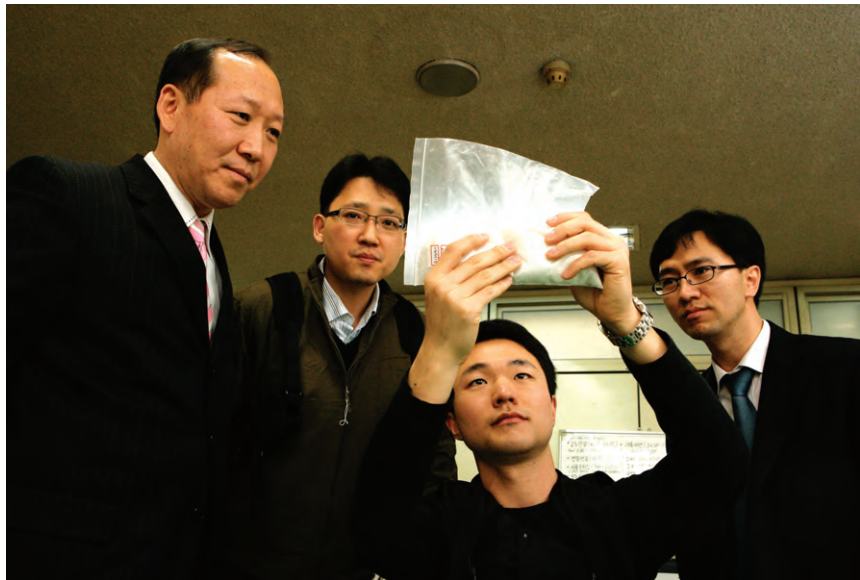
마약조직 갈수록 지능화… 인력 충원 절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의한 마약 공급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23만여 명이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89만여 명인데 이 가운데 마약류 밀거래 및 투약 관련 외국인은 약 1만명 정도라고 한다.

내국인과 국제 마약공급조직이 연계한 사례도 늘고 있다. 도춘성 수사관이 10년을 공들여 잡은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두목 프랭크 역시 내국인과 공모해 코카인을 밀거래했다. 프랭크는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마약사범에게 형을 집행하고, 해외로 인도한 첫 번째 사례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도 수사관은 "프랭크는 나이지리아인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남미 등지로 수회에 걸쳐 마약을 밀거래했다"며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그에게 이용당했다"고 밝혔다.

"프랭크에게 이용당해 국제적으로 마약을 운반한 피해자들을 보고 놀랐어요. 평범한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용돈이 궁해 범죄에 가담했더군요. 특히 프랭크 등 조직원들이 일부 여성 운반책들에게 성폭행을 가해 가족 전체가 불행해진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마약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1995년부터다. 당시 마약검사 기계를 들여와 정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마약 흡입 여부를 가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다. 소변은 4~10일 전, 모발은 1년 전 투약 사실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약 수사는 100%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 관련 제보를 할 경우 보상금을 주거나 형을 감량해주는 플리바기닝(자백감형제도·Plea-bargaining)이 허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관들은 업무와 연관성이 깊은

수사관들이 최근 압수한 필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정도 양이면 무려 8000명에게 투여할 수 있다.

세관, 국가정보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정보를 수집한다.

"어떤 이들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허위제보를 하기도 해요. 허위제보자 중에는 마약중독자인 남편이 강제로 투약해 가상을 실제상황으로 믿고 알려준 여성도 있었어요. 그 여성에게는 남편이 억지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서 죄를 묻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이 여성처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투약한 경우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마약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치료시설로 보낸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은밀한 장소에서 마약이

마약수사관들은 마약을 공급하는 국제 마약범죄조직과 밀조·밀수조직 등 진원지를 뿌리 뽑는 것이 주 업무다. 하지만 마약조직은 은밀히 활동하는 데다 갈수록 공급 경로가 다양해져 수사와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거래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법이 지능적이다 보니 애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점조직으로 된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하기엔 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 충원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장기간 내사와 잠복근무로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하는 후배들이 장가갈 것 아니겠어요?(웃음)"

도춘성 수사관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90%가 필로폰이며, 마약 투여자 대부분이 호기심에서 시작한다"고 귀띔한다. 또 "일부는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즐기려고 엑스터시를 복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마약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가정파괴범이며, 환각물질 흡입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은 마약사범으로 발전할 소지가 높으므로 청소년기부터 성교육처럼 환각물질과 마약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영암, 역사관광 고을로 우아한 변신

마한문화유적 한옥마을 등 과거여행 온 듯… F1경기장 건설공사도 한창

전남 영암이 서남권 경제관광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영암의 신성장동력 가운데 첫째로 꼽히는 것이 문화관광산업. 이와 더불어 대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친환경 명품 농산물 생산 등으로 지금 영암엔 활기가 넘친다.

봄빛이 완연한 3월 말 전남 영암으로 향하는 도로변 들판은 봄 농사를 위해 갈아엎은 밭이랑들로 곳곳이 붉은 황톳빛이다. 붉은 황톳빛은 전남도 지정 한옥보존 시범마을인 구림마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빛깔이다.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영암군 군서면 구림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황토를 접착제 삼아 쌓은 긴 돌담 안에 다소곳이 자리한 기와집. 담 너머 마당가에 핀 흰 벚꽃이며 붉은 동백꽃을 들여다보면 마치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전통한옥 200채가량이 밀집해 있는 구림마을은 전남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이다. 그 유래가 2200년 전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림마을은 '역사의 타임캡슐' 같은 곳이다. 마한문화공원이 지척이고, 마을 동쪽 끝은 4세기경 백제 문물을 일본에 전한 왕인 박사 유적지와 이웃해 있다. 구림마을 안에는 '풍수지리의 시조'인 도선국사가 기거하던 국사암, 500년 역사를 지닌 구림대동계사, 한석봉이 글씨를 배웠다는 죽림정사 등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깃들어 있다. 가장 최근의 역사적 사건은 3·1운동에 호응해 일어난 만세사건. 대동계 회원들의 회합장소였던 회사정에서 발생한 만세사건은 구림마을 중앙에 위치한 영암도기문화센터 앞 기념비를 통해 그 정신을 전하고 있다.

영암도기문화센터 관리담당 이재홍씨는 "옛날 구림대동계원 자녀의 혼기가 차면 묻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할 정도로 이 마을 사람들의 평판이 대단했다"며 "지금도 구림마을 사람들의 자긍심은 대단히 높아 이농률이 여느 지역보다 낮다"고 말했다. 구림마을이 근자에 사람들 입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서해안고속도로(2001년)와 천안논산고속도로(2002년)의 완공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수도권에서의 이동 시간이 4시간 반가량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F1대회 생산유발 효과 1조8000억원

영암 문화관광사업의 중심축인 구림마을과 인근에서는 오는 11월 6일부터 엿새간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며 2010년 대한민국주거박람회, 2012년 아시아주거박람회, 2015년 세계주거박람회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매년 벚꽃 필 무렵 축제가 열리는 왕인 박사 유적지에서는 올해도 4월 4일부터 나흘간 왕인문화축제가 열려 가두행진과 함께 수능합격기원 왕인학등(王仁學燈) 점등 행사, 줄다리기, 민속예술단 공연 등이 벌어진다. 왕인문화축제는 특히 일본 역사와 관계가 깊어서 매년 일본인 관광객 6000명가량이 이곳 유적지를 찾고 있다.

왕인 박사 유적지 관리를 맡고 있는 영암군문화유적관리사업소 직원 노홍구 씨는 "올해는 엔고 현상으로 더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영암이 조용한 역사관광지에 머무는 것은 아니

기와집과 긴 돌담이 특징인 구림마을(왼쪽). 왕인문화축제 개막행사인 '왕인맞이' 행렬의 지난해 모습.

매년 봄과 가을 축제가 열리는 왕인 박사 유적지. 머잖아 인근 삼호읍 일대에서는 F1 자동차 경기가 열리게 된다.

다. 서해에 면한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2010 F1(포뮬러원)코리아그랑프리 경기장 건설이 한창이라고 한다. 현재 토목공사를 45%가량 끝내 4월 초 서킷(경주로), 컨트롤타워 등 건물공사 착공식이 열린다고. 전 세계 자동차경주의 최고봉인 F1 경기는 2010년 이후 7년간 매년 개최될 예정이며, 세계 최정상급 레이서들이 출전해 '꿈의 스피드'를 겨루게 된다. F1이 열리는 기간의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조8000억원, 고용유발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삼호읍 일대에는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총면적 1114만㎡의 대불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른바 '전봇대 사건'으로 화제가 됐던 대불산업단지에서는 전선과 통신선로를 지하에 묻는 지중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량하중 보강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등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원래 경공업 중심 산업단지로 설계된 대불산업단지는 2003년 현대가 한라중공업의 삼호조선소를 인수한 뒤 조선 부품용 철제 블록 생산업체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조선 중심 산업단지로 변모해 리모델링이 필요해졌다.

영암군은 이밖에도 '달마지쌀 골드'라는 명품쌀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으며 무화과, 황토배 등 지역 특산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Interview

김일태 영암군수

"영암의 명물 기찬랜드 조성이 가장 보람"

"영암은 '남한의 소금강'인 월출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영암이 "농지와 산업단지,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룬 유서 깊은 고장"이라고 평가했다.

민선 4기 군수로 2006년 7월부터 영암 군정을 이끌고 있는 김 군수는 "최근 살림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물론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올들어 영암에서는 '달마지쌀 골드'가 전남쌀 베스트 10 선발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영암도서관이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으며 상수도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기쁜 소식이 이어졌다"고 자랑했다.

김 군수는 "그간 가장 보람된 일은 월출산 계곡에 자연친화적 휴양시설인 기찬랜드를 조성한 것"이라며 "지난해 개장한 기찬랜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자연계곡형 여름 피서지로 33만명의 피서 인파가 다녀갔다"고 전했다.

기찬랜드는 월출산에 사방댐을 조성해 만든 관광지로 주변에는 가야금 테마공원과 기센터, 친환경농업관 등이 들어서 영암의 명물이 되고 있다.

김 군수는 "공사 중인 F1자동차 경주장은 다목적 서킷으로, 총연장 5684m, 관중석만 12만석에 이르는 등 세계 최대 규모"라며 "내년 10월 대회 때 수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남도의 정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거제 지심도 동백숲길

그리워 뒤돌아 선 길 선홍빛 눈물 떨어집니다

원시림처럼 울창한 지심도의 동백숲길.

동백꽃은 겨울꽃이다. 겨우내 피고 지기를 거듭한다. 하지만 동백꽃이 가장 보기 좋은 때는 이맘때쯤의 봄날이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핀 동백꽃은 겨울철의 모진 삭풍 속에서 어렵사리 피었을 때보다 빛깔이 훨씬 더 선명하고 꽃송이도 탐스럽다. 봄빛 완연한 지금, 동백나무 우거진 남해안의 여러 섬들은 춘흥(春興)에 겨운 동백의 아우성으로 요란하다. 여기저기 앞다퉈 핀 동백꽃들이 섬뜩하리만치 아름답고도 요염하다. 기나긴 겨울 가뭄과 짧은 꽃샘추위 탓에 예년만큼 환상적인 동백꽃 세상을 구경하기는 어렵지만, 겨울의 묵은 때를 씻고 화사한 봄빛을 만끽하기엔 전혀 모자람이 없을 성싶다.

나의 봄은 경남 거제시 지심도의 동백꽃과 광양 섬진마을의 매화를 찾아 나서면서 시작된다. 최소한 둘 중 하나라도 구경해야 새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거제시 일운면의 지심도를 찾았다. 천리길을 달려 도착한 장승포항에서 다시 작은 여객선

지심도 동백숲길은 어느 길을 걸어도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열병하듯 늘어서 있다. 땅바닥은 푹신하고, 숲 그늘은 상쾌하며, 살랑거리는 바닷바람이 두 볼을 어루만지는, 기분 좋은 숲길이다. 아이들을 무동태운 채 걷기에도 좋고, 연인끼리 다정히 거닐어도 좋다.

을 타고 20분쯤 더 가야 지심도에 닿는다. 평일인데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지심도행 여객선을 오르내렸다. 겨우내 절간처럼 고즈넉했던 나루터는 동백꽃을 구경하러 온 상춘객들로 장바닥처럼 붐빈다.

지심도와 장승포항 사이의 직선거리는 5km도 안 된다. 문자 그대로 지호지간(指呼之間)인 셈이다. 그런데도 지심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같은 느낌을 준다. 시간의 흐름이 한동안 멈춰버린 섬인 듯 변화가 더디다. 처음 찾았던 십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굳이 변화를 찾는다면, 민박집들의 외형이 좀 더 깔끔해지고 환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소(거제 분소 · 055-635-5421)가 설치한 나무데크 전망대와 난간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는 점뿐이다. 사실 도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외딴섬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는 점은 지심도만의 매력이다.

울창한 상록수림 고스란히 보존

지심도에는 17세기 중반 무렵인 조선 현종 때 15가구가 처음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일본군 1개 중대가 주둔하면서 섬 전체를 요새로 만들었다. 지금도 지심도에는 일본군이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구축한 포 진지, 탄약고, 서치라이트 보관소, 방향표지석 등의 군사시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광복과 함께 일본군이 철수한 뒤로 지심도는 섬 전체가 국방부 소유 국유지가 됐다. 그 덕에 무분별한 개발 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울창한 상록수림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올 수 있었다.

지심도는 전체 면적이 0.356㎢에 불과하다. 해안선 길이를 다 합쳐도 3.7km밖에 안 된다.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섬이다. 하지만 섬 전체가 상록수림에 뒤덮여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더욱이 이곳의 상록수림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숲이 아니다. 원시적 자연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천연림이다. 한낮에도 어스레할 정도로 동백나무, 후박나무, 팔손이나무, 해송 같은 아름드리 고목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특히 동백나무가 숲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심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동백섬으로 손꼽힌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섬 전체에 붉은 동백꽃이 만발하고, 발길 닿는 곳곳마다 수백 수천 송이의 동백꽃들이 송두리째 떨어져 땅바닥에 나뒹구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런 광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지심도를 다시 찾곤 한다. 현재 지심도에서 '섬마을 바다풍경'이라는 민박집을 운영하는 조동일(59) 씨도 우연히 찾은 지심도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한다.

"한 7, 8년 전쯤 됐나? 아마 요맘때쯤 되었을기라. 포항에서 살고 있을 땐데 집사람하고 동백꽃 구경한다꼬 여길 왔다가 첫눈에 반했뿐기라. 그래서 당장 포항 집을 정리해뿔고 이리 들어온기라."

동백꽃 만발한 봄날의 지심도는 천국이나 다름없다. 어딜 가나 붉고 탐스러운 동백꽃 세상이다. 이곳의 동백꽃은 12월 초에 피기 시작해서 봄기운이 무르익는 4월 하순쯤이면 대부분 꽃잎을 감춘다. 대략 다섯 달쯤 이어지는 개화기에는 어느 때라도 아리따운 동백꽃을 감상할 수 있지만, 나뭇가지마다 무리 지어 핀 꽃은 바로 이맘때쯤에만 볼 수 있다.

1 지심도의 북쪽 해안이 한눈에 들어오는 해안선 전망대.
2 지심도 북서쪽 비탈의 울창한 대나무숲.
3 지심도에서 사시사철 언제라도 체험할 수 있는 뜰망낚시.
4 일본군이 지심도 곳곳에 구축해놓은 포 진지.
5 지심도 어느 민가의 장독 뚜껑에 수북이 쌓인 동백꽃 낙화.

지심도에는 의외로 길이 잘 나 있다. 일주도로의 총길이가 약 3.5km로, 해안선 길이와 엇비슷하다. 하지만 자동차 도로는 없다. 삼륜 오토바이가 간신히 지날 수 있을 법한 시멘트도로 아니면, 두어 사람이 나란히 걸을 만한 오솔길이 섬 구석구석까지 이어진다. 게다가 이곳의 오솔길은 대부분 동백숲길이다. 어느 길을 걸어도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열병하듯 늘어서 있다. 땅바닥은 푹신하고, 숲 그늘은 상쾌하며, 살랑거리는 바닷바람이 두 볼을 어루만지는, 기분 좋은 숲길이다. 아이들을 무동태운 채 걷기에도 좋고, 연인끼리 다정히 손잡고 거닐어도 좋다. 이 오솔길을 따라 2, 3시간만 걸으면 섬 구석구석을 샅샅이 둘러볼 수 있지만, 같은 길을 두세 번씩 반복해 걸어도 지루하거나 식상하지 않다.

멀리 경기도 부천에서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이정순(37) 씨는 다소 들뜬 목소리로 "지심도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좋은 곳인 줄은 몰랐어요. 오솔길도 좋고, 숲도 좋고, 바다도 좋아서 오래도록 그리워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지심도의 오솔길에서는 쪽빛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활주로도 만나고, 붉은 꽃송이가 수북하게 깔린 동백꽃 터널도 지난다. 한창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동백나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지, 아이들의 웃음이 끊긴 학교와 바닷가 언덕의 외딴 농가조차도 동화 속의 집처럼 아름답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동박새와 직박구리의 노랫소리도 흥겹다. 이렇듯 정감 어린 지심도 동백숲의 오솔길을 자분자분 걷다 보면,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뿐해진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 여행작가

여행 정보

숙박 지심도에는 동백하우스(055-681-3001), 섬마을바다풍경(055-681-6901), 해돋이민박(055-681-7180), 홍씨민박(055-681-7182), 동백섬민박(055-681-7181), 피싱하우스(055-682-4024) 등의 민박집만 있다. 그리고 장승포항에 위치한 거제도비치호텔(055-682-5161), 라이트하우스호텔(055-681-6363), 닉스모텔(055-682-2688) 등은 장승포항과 지심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좋다.

맛집 지심도에는 정식 식당이 없다. 식사를 하려면 민박집에 부탁해야 한다. 숙박 손님이 아니더라도 미리 주문하면 해물파전, 가정식 백반, 매운탕, 닭백숙 등을 차려주기도 한다. 장승포항의 항만식당(055-682-4369)은 싱싱한 해물을 듬뿍 넣어 끓인 해물뚝배기와 해물김치찌개가 시원하고 맛깔스럽기로 소문난 집이다. 그리고 남해안의 봄철 별미로는 향긋한 쑥국에 싱싱한 도다리를 넣고 끓여낸 도다리쑥국이 으뜸이다.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의 가조페리선착장 부근에 자리 잡은 평화횟집(055-632-5124)을 비롯한 여러 음식점에서 도다리쑥국의 진미를 느낄 수 있다.

거제 평화횟집의 도다리쑥국

가는길 **승용차**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IC(14번 국도)→신거제대교→고현→옥포→두모로터리→거제문화예술회관 앞→장승포 지심도 도선장

여객선 '동백섬호'가 장승포항의 지심도 도선장(055-681-6007)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평일 5회 출항한다. 하지만 날씨, 요일, 계절에 따라 운항 횟수와 운항 시간이 달라지므로 전화로 미리 정확한 운항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심도까지는 20분가량 걸린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는 수시로 운항한다.

고령자 인재은행 &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중년층 재취업문 두드리세요

조영철 기자

중년의 구직자들이 3월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09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인정보들을 살펴보고 있다.

50세 이상 고령자나 중견 전문인력에 대한 노동부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 악화로 조기퇴직하고 있는 50세 이상 고령자와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중견 전문인력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 인재은행 3곳과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1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 인재은행은 지난해의 47곳에서 50곳으로 늘어나며, 지난해 전국에 1곳에 불과했던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2곳으로 증가한다.

올해 고령자 인재은행이 추가되는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세 군데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령자와 중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알선, 직업소양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일부 고령자 인재은행에서만 제공하는 심층상담, 일자리개척동아리, 창업스쿨 등 부가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는 점차 실시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에 이어 지난 2월 20일 광주에서 문을 연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지방의 중견 전문인력 취업 알선과 직업 진로 지도, 중견 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향후 다른 광역시와 도에도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인재은행과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DB)는 고용안정 정보망인 워크넷(www.work.go.kr)과 연계해 고령자 또는 중견 전문인력의 구인·구직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구직자는 고령자 인재은행과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워크넷에 개인의 경력이나 전문성 등 취업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취업알선·상담 및 직업소양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영업, 경영자문, 기획관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상담과 알선을 받을 수 있어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인재은행과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이용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 인재은행을 이용한 고령 구직자 취업자 수도 2005년 3만3400명에서 지난해 6만7400명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다.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화 문의는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02-2110-7316. G

글·박경아 기자

■ 고령자워크넷 http://senior.work.go.kr

저소득층에 무담보 무보증 연리 2% 대출 '희망키움뱅크'

"창업 지원 받고 다시 일어서세요"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도 연리 2%의 저렴한 이자로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뿐 아니라 성공적 창업을 위한 컨설팅까지 지원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키움뱅크' 사업을 확대한다. 희망키움뱅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5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 예산상 제약 때문에 지원대상이 자활공동체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예산이 기존 2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자활공동체뿐 아니라 개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권역별 사업 수행자를 선정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개인은 연 2%(고정금리),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범위 내 조정 가능) 조건으로 창업·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창업·운영자금엔 설비비(시설 보수, 인테리어, 기계 설치 등), 상품 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이 포함된다.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 최대 2000만원 대출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에게는 우선권을 주는 반면 △대도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상 자산 보유 △배기량 2500cc 이상 차량 보유(장애인용이나 생업용 차량 제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자활공동체는 △기초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시군구청장의 융자 추천을 받은 단체 등이다. 또 6개월 안에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은 13곳으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은 3월 27일까지이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올해 말까지 매달 또는 분기별로 추가 공고하므로 매번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키움뱅크의 각종 혜택을 자활공동체뿐 아니라 개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또는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확인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공인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고서 등이며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원하는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계획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 사업능력과 상환의지 및 능력이 있는지 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 류양지 과장은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담보나 신용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창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데다 창업 교육, 컨설팅 등도 함께 제공하는 만큼 자립의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

글·이혜련 객원기자

'청년시대 실크세대' MC 개그맨 안상태

난, 꿈을 위해 도전했을 뿐이고~

'청년시대 실크세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담당 손성화 PD)는 청년 구직과 창업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최고 유행어 "~할 뿐이고"의 주인공인 개그맨 안상태 씨가 MC를 맡았다. 무명시절 오를 무대가 없어 길거리 공연도 많이 했다는 안 씨. "난 꿈을 위해 도전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기회는 왔을 뿐이고~"가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다.

3월 17일 오전 10시 '청년시대 실크세대' 녹화가 진행 중인 한국정책방송 KTV 스튜디오에 웃음꽃이 만발했다. 개그맨 안상태 씨는 시종일관 위트 넘치는 진행으로 출연자들을 즐겁게 했다. 첫 방송 출연에 당황해하며 NG를 내던 출연자들도 안 씨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웃음 지으며 긴장을 풀 수 있었다. 백수나 다름없던 무명시절 경험담을 소소하게 털어놓는 것은 기본. 한 출연자의 입술이 부르튼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 녹화 때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열심히 하니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다정스러운 멘트를 던지기도 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초반 여성 출연자는 녹화 후 안 씨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즐거워했다.

구직과 창업이 목표인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는 안상태 씨.

'청년시대 실크세대'는 취업전쟁에 뛰어든 청년 구직자와 자신만의 기술과 아이템으로 승부를 건 청년 창업자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3월 5일 첫 방송을 탔다. '실크세대'란 1970년 이후 태어난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인터넷과 대중문화를 통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어나가는 세대라는 뜻. 진행 역시 실크세대라 할 수 있는 안 씨와 손문선 아나운서가 맡았다.

손성화 PD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자로 안상태 씨를 염두에 뒀다"면서 "안 씨가 젊은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인기 개그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무명시절을 겪어 청년 구직자들의 아픔을 잘 알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안 씨는 "청년실업이 남의 일만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제 친구도 이른바 명문대 대학원까지 나왔음에도 오랫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지금은 연예인으로 활발히 활동하지만, 방송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나 다름없죠. 오랜 무명시절을 겪으면서 일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행자 섭외가 들어왔을 때 바로 '좋다' 고 했죠. 구직과 창업이 목표인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거든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안 씨는 원래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공학도였다.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는 그는 대학 전공 역시 부모님 의견을 따랐다. 평소 조용히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었다는 안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성격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성격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에 유머집을

달달 외우고 친구들과 함께 대학로, 백화점, 지하철역에서 개그 공연을 하기도 했다.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저에게 '개그 본능'이 숨어 있었던 거죠. 물론 힘들었던 무명 시절 친구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했지만 개그맨이 된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 꿈이었으니까요."

안 씨는 "요즘 청년 구직자들이 꿈을 잃은 채 단지 좋은 회사에 들어가 돈을 벌고 싶다고 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온전히 제 개그 공연만을 보여주는 극단을 만들고 싶어요. 현재 준비 중이고, 올해 안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MC로도 활동 영역을 확장하려고요. '청년시대 실크세대'의 주인공인 청년 구직자, 창업자 분들도 진정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꿈을 위해 도전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기회가 왔을 뿐이고~(웃음)." G

글 · 이지은 기자 / 사진 · 홍중식 기자

'청년시대 실크세대'는?

2030세대 창업 성공 이야기 조명

'청년시대 실크세대'는 꿈과 도전의식을 지닌 청년 구직자 및 창업자의 다양한 사례를 다루면서 '일자기 나누기'를 확산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희망을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KTV, 실크로드CEO포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유망 중소기업에서 일일체험을 하는 'job아라! 희망 중소기업',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2030 실크세대 성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주목! 실크세대', 멘터의 입장에서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내일을 향해 쏴라', 그리고 구직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안상태 씨의 '개인기'를 통해 맛깔 나게 전달하는 '안상태의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유용한 팁팁팁!' 등의 코너로 구성돼 있다.

이 프로그램의 공동기획자이자 고정패널인 실크로드CEO포럼의 변희재 회장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실크세대'의 모습을 통해 젊은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시대 실크세대'는 KTV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www.ktv.go.kr/silk.chosun.com)와 케이블TV '비즈니스엔'에서도 방송된다.

볼 만한 프로그램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 | 매주 목요일 17:30~18:20

문화란 삶이 무엇인지를 묻는 철학적 질문이다.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인들의 열정적 삶과 철학적 사색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토크멘터리' 프로그램. 김성경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4월 2일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흥을 꿈꾼다'는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이청승 사장이 출연한다.

내 마음의 고백 | 매주 금요일 20:40~21:20

아름다운 사람들의 행복한 고백을 담은 휴먼 토크 프로그램으로, 문학평론가이자 박목월 시인의 아들인 서울대 박동규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4월 3일에는 '새박사 윤무부 교수'의 진솔한 고백이 방송된다. 윤 박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인연만 있었다고 한다. 바로 아내와 새. 윤 박사의 순수하고 진심어린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덥혀줄 것이다.

KTV 북카페 | 매주 수요일 17:30~18:20

책과 이야기가 있는 휴식 같은 프로그램. 매주 화제가 되는 작가를 선정한 후 스튜디오로 초청해 진행자 및 전문가 패널과 이야기를 나눈다. 진행은 유정아 아나운서가 맡았다. 4월 1일에는 2005년 세계문학상 수상작가인 김별아 씨(사진)가 출연해 신간 '가족판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판타지'는 가사 노동에 힘겨워하고 자녀 교육에 전전긍긍하며 남편 및 시집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30대 주부, 즉 작가 본인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면서 가족의 본질을 파헤친 산문집이다.

17개 교향악단 봄맞이 대축제

4월 베토벤 바이러스 주의보

2009 교향악축제

일시 4월 3(금)~21일(화) 오후 8시, 일요일은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
문의 02-580-1300, www.sac.or.kr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예술의전당 음악당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총 17개 교향악단이 참여해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플루티스트 윤혜리, 하피스트 곽정, 피아니스트 임동민 등 국내 최고 아티스트들이 협연자로 참여한다. 특히 개막연주회에는 수필가 피천득 선생의 외손자로 잘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재키브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사진)와 함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교향악축제의 특징. 올해는 치열한 경쟁을 뚫은 3명의 젊은 연주자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오른쪽 표와 같다.

2009 교향악축제 일정

연주일	교향악단	지휘자
4월 3일(금)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최희준(객원지휘)
4일(토)	대전시립교향악단	에드몬 콜로메르
5일(일)	전주시립교향악단	강석희
7일(화)	대구시립교향악단	곽승
8일(수)	울산시립교향악단	김홍재
9일(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박은성
10일(금)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서	현석
11일(토)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수스 아미고(객원지휘)
12일(일)	청주시립교향악단	조규진
13일(월)	서울시립교향악단	발두르 브뢰니만(객원지휘)
14일(화)	창원시립교향악단	정치용
15일(수)	충남교향악단	김종덕
16일(목)	KBS교향악단	여자경(객원지휘)
17일(금)	수원시립교향악단	김대진
18일(토)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이동호
19일(일)	원주시립교향악단테오	월터스(객원지휘)
21일(화)	부산시립교향악단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새 새(New Birds)

일시 4월 4(토)~10일(금)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4115~6, www.ntok.go.kr

'새'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으로, 복잡한 삶에 치인 아테네 시민 두 사람이 새들과 교류하면서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국립극단의 '새 새(New Birds)'는 '새'를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코믹풍자극으로 각색한 작품. 시종일관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재미있는 내용은 물론 장민호, 백성희 등 원로 연기자와 젊은 연기자들의 어우러짐도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다.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병아리합창단의 노래 솜씨도 일품이다.

어울림남성중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일시 4월 4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
문의 010-2531-2464, cafe.daum.net/harmonymc

직장인 남성들로 구성된 어울림남성중창단의 제3회 정기연주회. 어울림남성중창단은 그동안 두 번의 정기연주회와 '소망의 집'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후원 공연을 통해 희망 나누기를 실천해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오 해피 데이' '사공의 그리움' '우리들은 미남이다' 등 중창곡은 물론, 바리톤 김명찬이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 최고의 이발사'를, 테너 김대원이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등을 선보인다. 전석 무료 초대 공연. G

글 · 이지은 기자

Korea Sparkling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KOREA FLORITOPIA 2009
http://floritopia.or.kr | http://flower-expo.kr
*정부 · AIPH 국제공인박람회
꽃, 바다 그리고 꿈
2009. 4. 24(금) ~ 5. 20(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 · 수목원
Flower, Ocean & Dream
후원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태안군,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사)한국화훼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